

정독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10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33-46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591 ☎ 02) 275-8505~6 FAX: 275-8506 KOTIA(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거나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빛거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변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10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48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KDTA(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7.10월호

<통권 54호>



〈표지사진〉

한걸음씩 내딛어보자.
차곡차곡 걸음을 댄다 보면
갈 수 있을까?
멀리 있는 또다른 나의 친구
들한테 인사할 수 있을까?
내 몸이 기차가 되어 기차길
을 쏜살같이 달려가면 어디
라도 갈 수 있겠지...
(사진 : 수원 용기중기어린이
이집 제공)

일하며 생각하며 / 3

한국보육교사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김종해

인권교육 / 5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을

류은숙

통합보육 / 9

통합을 왜 해야 하는가?

윤선아

단체탐방 / 12

"견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를 방문하고 나서

전경숙

이달에 만난 사람 / 15

대구보육의 터줏대감 안경숙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임남희

일본보육연수 / 20

2개월간 일본 보육연수!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생활을 담은 보육을 위해

박화명

- 밥과 김치를 먹는 예신보육원 아이들

지연

보육정책 / 25

서울시 시민복지 5주년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어린이건강 / 29

모유·우유 먹이기

인희협

영양과 건강 / 39

질환별 영양관리(1)

남상미

연장교육 / 43

전래동요와 창작을동을 아이들과 함께...

최용경

47 / 연장소식

문유미 변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힘은, 서로를
보듬고 함께 하려는 서로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50 / 소모임소개

고정미 인천 '그림책 분과' 소모임 탐방

53 / 좋은 그림책 소개

오윤정 나무숲속

55 / 고사의 의견

서은희 프로 보육교사는 아름답다!

57 / 세상일기

위양자 '대권=시민권'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59 / 오사카에서 온 편지

변미양 재일동포 할머니들의 '어머니학교' 20주년

61 / 육아일기

이선홍 유빈이 말하다

63 / 턱아소별곡

이주영 롯데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65 / 공트

박화명 만원버스 안의 희망

66 / 우리들의 목소리

백미경 떠남과 시작의 아름다움

68 / 보육계 풍양

71 / 소식과 소식

74 / 편집부에서

짜·임·새

1997년 10월호(통권 54호)/첫발행 1992년 5월25일/떠난곳 한국보육교사회/떠난이 남미영/몸은이 박정애, 이선주, 황미혜/떠난날 1997년 10월5일

일하며 생각하며

.....

한국보육교사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김종혜 ·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10여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이 출발한 한국보육교사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여년간의 지탁연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육운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탁연 구성원들이 이러한 귀중한 경험과 성취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용기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해안에 지탁연의 사람들에 대해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보육운동은 보호자와 보육교사, 보육시설운영자라는 3자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보육서비스의 창출과 질적 발전에 대한 요구를 집약해낼 수 있는 당사자들의 조직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탁연이 외롭게 이 3자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지탁연의 노력이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보육에 관련된 사람은 거의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이제는 지탁연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나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의 결성같은 것입니다. 홀로 보육에 대한 목소리를 내던 것에서 비슷한 하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입장을 일면 유지하면서도 새로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교사회는 이러한 요구를 담아낼 조직으로 탄생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성과를 뒤로 하고 새로 출발하는 보육교사회에 다시금 축하드리며 몇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세력을 보다 더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것입니다. 10여년 활동의 결실로 민보련과 같은 새로운 조직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호자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집단은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새로운 우호세력을 형성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아지는 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에 보육

교사회의 많은 역량을 할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는 보육현장에서 어린이들과 직접 부딪히며 생활하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보육환경의 구성 방법, 교사로서의 태도와 보육실천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보급,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 재교육 등이 보육교사회로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일 것입니다.

셋째는 회원들,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제도가 현재 정도로나마 발전하게 된 것은 일면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노력과 함께 보육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몸으로 이겨낸 보육교사들이 없었다면 상당수의 보육시설들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고 보호자의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조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보육교사 본인의 교사 능력의 확대재생산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보육교사의 권익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보육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조직으로까지 보육교사회가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가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설장, 교사, 보호자의 욕구는 동일한 것 같지만 각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보육교사의 권익을 지킨다는 점에서는 교사의 입장도 다른 분들의 입장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간자적인 위치에 가장 근접한 것이 보육교사회의 위상일 것입니다. 아지는 발생하지 않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관련집단들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육교사회가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육교사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세력을 결집시키고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추후 보육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조직으로까지 보육교사회가 발전되기를...」

인권교육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을

류은숙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흔히 목격되는 반인권적 태도

외국의 한 공원을 유학생 부부와 거닐고 있을 때였다. 우리쪽은 유모차를 밀며 걷고 있었는데 노란머리 파란눈의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왔다. 한마디로 "비켜라, 내가 간다"는 식이었다. 길은 좁은 오솔길이었고 피해가야 할 사람은 유모차에 탄 아기가 있는 우리편이 아니라 그 아이였다. 그러나 아이는 무섭게 돌진해왔다. 우리는 그 아이와의 충돌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친구 부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꼬마 나치가 더 무섭다니까..."였다. 그 아이의 부모세대가 가진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이에게선 더 무섭게 표현된다는 얘기였다.

집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한 시각장애인이 올라탔다. 지팡이로 간신히 몸을 가누면서 차비를 내려 애썼다. 운전사는 "그냥 가요"라고 여러번 말했다. 공짜로 태워주겠다는 뜻일게다. 그러나, 그 시각장애인은 그걸 모욕으로 여겼는지 어렵게 주머니에서 동전을 찾아내 차비를 지불했다. 앞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자리를 양보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자리도 없는 버스위로 가버리는 거였다. 아들이 쫓아가서 "왜 그냥 앉아계시지요" 하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싫어, 싫다구"였다. 소위 '병신(?)' 옆에 앉기 싫다는 말투였다. 영문을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 앉아 있었다.

위 두가지 예만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타나는 우리의 반인권 의식과 행동을 주변에서 흔히 엿볼 수 있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어디서 연유하는 걸까?

사회모순의 반영? 인성교육의 부재? 강요된 의식? 우월감과 피해의식의 표출?

저마다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가 답이 됐든간에 분명한 점은 일단 굳어져 버린 반인권적인 의식이나 행동을 고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육 분야에서나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듯이 인권에 대한 존중과 태도 또한 어려서부터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인권교육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 이것이 '인권'의 정의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인권은 우리의 본성에 내재된 권리로서 인권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성격과 지능과 재능과 양심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신적 욕구 및 기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는 유엔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인권이 갖는 의미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읽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법,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더구나 어른이 아닌 아이에게 권리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아이들에게는 애정이 담긴 보호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작 아이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 권리를 아이가 제대로 수용하고 이용할 능력이냐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와 가깝게 있다는 어른일수록-교사 또는 부모- '아이의 권리'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낀다.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자신의 권위가 침해당하는 느낌을 갖는 듯 하다.

그렇다. 아이들의 권리와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의 권리는 충돌할 수 있다. 그런데 충돌이 꼭 나쁜 것인가? 부딪치고 마주보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익히는 것 자체가 인권교육의 중요한 과정이지 않은가? 지금까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껴안으려 들지는 않았는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적, 정신적 자산을 동원하느라 힘을 쏟았지만 정작 아이 자신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리는 법,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해온 것은 아닐까?

세계가 약속한 인권교육

유엔 회원국 중 단 2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서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 자신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인권교육 실시의 당위성을 밝혀 주고 있다.

이 조약에 담긴 교육의 이상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 모두를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이 양육되는 것이 세상과 인류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할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이 이행될 수 있으려면 그보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안에 담긴 교훈을 알고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과 성인 모두, 그리고 아동의 복지와 발달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정규교육이나 비정규교육,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 각 연령집단에 요구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매체의 활용과 민간단체의 각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스며드는 인권교육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 자신은 물론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조약을 읽어본 일조차 드물다. 그러나 조약에서 보장된 아이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들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참새방앗간을 만드는 어른들의 대책이 넘칠 뿐 아이들의 권리 편에 서는 입장을 찾아보긴 힘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인권교육'이 생소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아주 오랜 것들이고 친숙한 것들이다. 생명, 자유, 평등, 민주주의, 평화, 자연과의 조화 등등... 그래서 인권교육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길잡이라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은 '참여'의 과정으로서 인권의 지식과 가치와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끔 정교하게 계획된 학습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내용은 '변화지향적'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가진 수동성과 행동에 대한 반감을 깨뜨리고 변화지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 속에서 인권학습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지식으로 써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변화로써 인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결국 인권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해 '변화'이다. 인권교육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누구나 동의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이라는 원칙으로부터 시작하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현상을 통하여 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억압구조를 깨닫고 또한 그 억압구조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럴싸한 인사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비판의식을 튼튼히 키우는 일이 인권교육이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를 고쳐나가는 데 참여할 스스로의 잠재력을 의식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아울러 도덕적 헌신을 갖춘 인권옹호자들이 인권교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이 좋지, 이런 것을 실천하기에 엄두가 안날지도 모른다. 먼저 아이들의 권리를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조약'에 대해 숙지하자. 하나하나 조항을 읽어나가고 분석할 때 아이들의 권리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적용해보자.

기초적인 말하기, 읽기, 셈하기,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춤추기, 비디오 영화보기, 소풍가기... 이 모든 것들에 인권교육은 스며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말하기'에서는 발표력이 좋은 아이를 기르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 기다려 주는 것, 함께 얘기한 것을 '약속'으로 만드는 것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읽기'에서는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조약,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규정등을 학습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문서들은 어른들도 이해하기에 어려운 문서이지만 아이들의 언어로 바꾸는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시청각

자료가 외국에서는 아주 많이 개발되어 있다. 셈하기에서는 인권에 관한 여러 지수를 응용할 수 있고, 노래부르기나 그림그리기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에 덧붙여 확고한 지식을 갖고 행진하려는 교사들이 있는 한 끊임없는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 숨쉴 수 있는 '고르기'와 '다지기'가 큰 보폭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퍼즐 퍼즐...

1		2				15			18
						16	17		
		3		4					
				5		6			
11	12							8	
					7				
	13		14						
						9			
				10					

지난호 '퍼즐 퍼즐' 어떠셨어요? 머리 식힐 때 그만이라구요? 자, 그럼 이번호 '퍼즐 퍼즐'도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답은 60쪽에 있습니다.

<가로열쇠>

① 보육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일까요? ② 한국에도 내놓지 않은 모든 곳, 삼천리 ○○○○ ③ 일이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있는 나무로, 요즘 한창 빨갛게 물들지요. ④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영국 전황세자비. ⑤ 장롱 사람 따위의 사이를 칸 막아서 싸는 좁은 나무. ⑥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죠, 서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부정선거의 하나인데요... ⑦ 한 시대의 인간존재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 시대 갖가지 기록과 산물을 넣는 땅 속에 묻는 용기. ⑧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해 군비를 강화해서 무력으로 국력을 발전시키려는 주의, 2차 대전시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가 그 대표적 국가입니다. ⑨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세로열쇠>

① 보육시설에서 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② 토지나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 알선해주는 곳. ③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죠, 예전에 오일장이 서면 천막을 치고 이게 와서 갖가지 소를 보였죠, 씨커스단. ④ 방송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낭독하는 사람. 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거상의 부인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특이한 미소로 더욱 유명하지요. ⑥ 10원, 50원, 100원, 500원은 다 이것입니다. ⑦ 조선 고종때 신식군대 양성과 민제일파에 불만이 쌓여있던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⑧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후의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⑨ 혼자 추는 춤. ⑩ 신한국당 이회창대표의 두 아들이 이것을 기피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죠. ⑪ 신라때 실시한 향리의 일종,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 각 주의 향리를 1명씩 서울로 와서 번상케 했는데요, 고려 기인제도의 시초가 되었지요.

통합보육

통합을 왜 해야 하는가?

-통합보육의 중요성, 그 첫 번째-

윤선아 ·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특수교육 책임교사

윤선아선생님은 서울대병원 특수교육교사를 하시면서 유아기관에서의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통합교육은 더 절박하여 보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이선주선생님의 소개로 선생님께 원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결히 승낙을 해주셔서 7가지 주제로 몇차례 연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통합보육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방법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차례 --

1. 통합을 왜 해야 하는가?
2. 통합보육의 효과
3. 장애아동의 선별/진단/배치
4. 통합보육 활성화 정책
5. 통합보육프로그램
6. 통합보육의 사례
7. 통합보육의 과제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은 점차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장애아동을 일반아동과 함께 일반교육/보육환경에 배치하여 장애아동이 적

절한 보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보육에 관한 논의도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 아직 "장애아동을 왜 일반아동과 통합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보육/교육의 효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장애아동을 왜 일반아동과 분리시켜야 하는가"를 자문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는 "통합"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장애아동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장애아동은 더 이상 그 가족의 집과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어 법적, 사회적, 교육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교육제도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시켜 교육시키고 일반아동 중에서도 아동기부터 가능성과 적성을 평가하여 분리교육을 시킨 결과, 성장기에 함께 경험해 보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타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증가되어가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운동으로서 "종합교육운동"이 실현되어 자연스럽게 통합을 받아들이고 있다.

통합은 왜 필요한가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의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각기 그 개성과 능력을 존중받는 사회여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장애아동은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소외되어 왔다. 장애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사회가 거대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어떤 특정한 요소(지능이라든가)에 의해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예: 정신지체)으로 인위적으로 인간을 분류한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Bartel과 Guskin은 말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신지체아를 지칭하는 용어의 변천을 보면, "Mental retarded people"이 "person with mental retardation"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신지체라는 별명을 붙여 특정 계층으로 분리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먼저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합보육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아동을 교육하는 목적은 아동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나아가 그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데에 있다. 즉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의 잠재력 실현과 그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때 어린 시기에 일반아동과 통합되어 또래 경험을 하는 것은 장애아동에게는 물론 일반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어려서부터 통합환경에서 성장한 장애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쉽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기에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의 통합(또래 교수, 또래 관찰학습 등의 방법)을 통해 발달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의 교육 환경, 놀이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반아동은 장애아동과의 경험으로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일반아동은 어려서부터 장애아동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덜 갖고, 장애를 개인이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이타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신체와 다르거나, 자신의 능력과 다르다는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만 낯설게 여기며, 혹은 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연스럽게 또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통합교육 현장의 관찰 보고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인천 순복음유치원을 졸업한 쌍둥이자매의 경우(장애인 신문, 102호), 이 두 일반아동은 유치원 시절 자폐아동과 쌓기놀이, 블록놀이 등을 하며 함께 보냈고, 그 아동이 자폐아였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자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밥 먹을 때 험한 먹구요, 말을 잘 못해요."라고 말하며 친구였던 그 아이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우리네아이들』 7/8월호에 실린 <일본보육 연수기>를 쓴 저자들의 눈에도 "어린 아이들은 장애아를 장애를 가진 이상한 아이라기 보다는 그 아이 자체로 대하는" 것으로 보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성우는 소아과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준명이가 가까이 와서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자고 했다. “가기 드려서?” 선 듯한 목소리로 감기들렸다고 묻는 준명이를 보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이 빠졌니? 우리 형도 이 빠졌어.” 성우는 준명의의 빠진 이를 보며 말했다. 준명이가 진료실로 들어간 후, 성우 어머니는 성우에게 준명이가 장애아이라고 속삭였다.』

위의 사례에서 성우 어머니는 준명이가 성우와 같은 또래 아이라는 사실보다 장애아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성우는 준명이를 빠진 이가 우리 형과 같은 데에서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또래 친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함께 배워요, 1997).

즉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장애라는 별명을 붙이고 소외시키기보다 “차이”를 가지기도 했지만, 나와 비슷한 점도 많은 친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교육적 측면에서 일반아동의 부모나 교사는 장애아동의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모방하게 될까봐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아동의 이러한 모방은 일시적이며, 부모나 교사가 일관되게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무시하면 일반아동의 모방은 없어진다. 이때 교사는 장애 아동을 도와주는 일반아동들을 칭찬해 줌으로서, 일반아동이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격려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장소)만을 공유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닌,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게 잘 수용되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심한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적절한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통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통합의 효과에 대한 확신은 통합교육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될 것이다.

1000만 가정 한마음통장 제도, 들어보셨나요?

여성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단체운영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원 및 회원관련인이 새로 통장을 개설할 시, 한국보육교사회가 가지고 있는 은행통장(조흥, 농협)의 코드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세후이자 3% (거치식, 적립식 예금 및 신탁일 경우) 혹은 30%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등 자유입출식 예금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기금에서 보육교사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본인은 전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자발생금을 모두 갖되, 은행기금에서 따로 할당분의 금액을 본회로 주는 것입니다.

현재 조흥은행이나 농협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본회 코드번호를 은행창구에 가셔서 알려주시고, 없으신 분은 새로 개설할 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제·탐·방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를 방문하고 나서

전경숙 · 수원시 권선구 올망졸망어린이집 교사

본회에서 내걸고 있는 주요이슈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인권인데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주변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가에 관심을 갖던 중 우연한 기회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어떤 단체인지 방문해 보았다(조직부장이신 김은희씨를 만났다).

단체소개를 간략을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94년도 시민교통환경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95년 시민교통환경센터로 개칭하고 97년 6월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가 시민교통연구소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부설로 두고 있고 현재 사단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로 연구실무 인력일텐데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고 있나요?

어느 시민단체처럼 어렵죠. 돈 없어요. (웃음) 열정과 애정으로 일하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 사업의 재원은 서울시 지원 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마련하고 있어요. 저는 교통안전분야인데 앞으로 3년간은 미취학 아동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계획이고 그후에는 노인 교통안전문제에 대해 연구할 계획예요.

‘걷고 싶은’이라는 말이 참 친근하게 와 닿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구상하셨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걷고 싶다’라는 것은 안전도 생각한 것이지만 인간이 살아가야 할 최적의 조건이면서 최소의 조건이라 생각해요. 우리 도시는 보행조건이 개선되어 보행자중심의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시작도 주인이 되어야 하고 중심도 주인이어야 하기에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의 방향이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주민들과 함께 한 사업의 예는 무엇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 해주신다면? 또한 하반기 주요사업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에게 안전한 서울만들기’ 일환으로 은평구를 시범으로 해서 작업을 벌였는데 행정구는 넓잖아요. 그래서 녹번 초등학교를 표본으로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주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어요. 어머님들 토론회도 가지고 지표사업도 하고, 아이들용 교육팝플렛도 만들었어요.

그외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실을 하고 있는데 약 40개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안전교실을 마친 아이들에게 면허증을 발행하고 있지요.

또 지금 설문조사만 끝나면 바로 만들어 낼 미취학 아동의 교통안전교재를 만들 것이고, 어린이들이 볼 ‘어린이 지역안전신문’을 월 2회 발행하여 배포할 예정이고요, ‘걷고 싶은 역사문화거리 만들기’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고 있는데 곧 나올 예정이고 나오면 시민공청회를 열 계획이에요.

사실 이곳을 탐방 나온 것도 이 자료집 때문이라면 이유인데요(웃음). 저희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거든요. 미취학 아동의 교통안전 자료집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미취학 아동은 행동 특성이 명확한데다 시중에 나와있는 교육집이 매우 추상적으로 교통안전에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교통안전 교재를 보면 어머니 대상도 아니고 아동 대상도 아닌 어중간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판단 아래 부모·교사용 교육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기 위해 안면이 있는 유치원 전현직 교사들과 모임을 구성했어요. 몇차례 논의를 통해 도움을 받았죠. 상황이 되면 보육교사들과 함께 결합해서 모임을 구성해서 보육교사가 만드는 아이용 교육자료를 만들면 더욱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도 사실 그쪽을 생각 못한 것은 아닌데 전문가가 붙어 현장교사와 함께 연구모임을 하면 좋을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그리고 이 자료집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사실 모임을 진행해보니 교사들이 교통안전교육을 한 경험이 거의 없더군요. 모임 때마다 한주제를 주고 교사들이 실제 교육을 해보고 와서 그 경험을 토론했고, 그렇게 정리한 것들이죠. 또한 아이들을 보는 시각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제재시켜야만 하는 교육이 맞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일인데, 아이들을 조심시켜야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린이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통원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인식조차도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통원차에서 내려 돌아 나오는 차에 치어 사망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엔 어린이 시설의 통원운전자는 따로 자격시험을 본다고 하니 그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요즘 아이들에겐 길에서의 놀이문화가 없어졌어요. 아이는 차 없는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골목길보다는 지름길을 좋아한다는 특색이 있대요. 골목길에서 놀던 우리 골목길 문화가 사라진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길에서의 안전교육보다는 차 안에서 또는 오르내릴 때의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적합하리라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을 따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교육과정에서 꽃이나 감이지 등을 통해 생명의 존엄함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대요.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선점이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는 초등학교의 80%를 어린이 보호구역 실시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주택가로 들어가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심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결국 생활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치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현재로서 과속방지턱이 가장 만만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지 몰라도 골목길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골목길은 워낙 장애물이 많아 과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과속방지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과속방지턱이 아이들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는 보행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아이들은 골목길을 되찾아야한다고 생각돼요. 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라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보행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운동차원으로 풀어가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만약 운동으로 풀어간다면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해야하는지, 구체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교통안전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별 성과가 없어요. 캠페인의 주요방식은 행사를 치르고 기념으로 뱃지 달아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돈은 좀 들겠지만 노란색 모자가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운전자들에게 '노란색 모자를 쓴 아이가 당신의 자녀일지도 모르니 우선 멈추세요'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캠페인 외에도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죠. 그래야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보행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개선되기 힘들다고 여겨져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우리 세대가 그렇지만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어요. 운동의 전문성을 찾아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했어요. 물론 이 일은 재

미가 있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경직되지 않아서 좋고,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생활에 녹아가는 운동이라 즐겁죠. 그리고 보통 운동단체들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자기 문제로 직접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때문에 지지층들도 많아요. 이 운동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주민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본답니다.

이제 시민운동은 이슈파이팅 보다는 주민사업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탐방을 허락하여주시고 이렇게 긴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실 저희단체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미취학 아동 교통안전 자료집이 나오면 적극 활용해 주시고 평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육교사회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길 기대해요.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은평구 초등학교 어머니들에게 교육을 하는 김은희씨.



대구보육의 터줏대감 안경숙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임남희 · 본회 부회장

대구로 가기 위해 나선 여정 중에 투명한 가을 햇살과 가을들판은 모처럼의 사색과 일상의 탈피를 선물해주었다. 아랫녘으로 내려갈수록 황금들판은 점점 넓어지고 그 풍성함에 내 것도 아니면서 마음이 느긋해진다. 기차 안에서 천팔처럼 먹을 것을 일일이 챙겨주시던, 가을들판 만큼이나 마음이 넉넉한 할머니들과 흥분한(?) 작별을 하고 생전 처음 대구역에 발을 디뎠다.

배꼽마당 어린이집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도 아주 찾기 쉬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무성한 플라타너스 때문에 간판은 보이지 않았으나 계단 입구로 살짝 보이는 아름답고 특이한 그림이 예사건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원활동가들이 그랬다는 계단 양쪽의 벽화는 초라해보이는 계단을 가려주었고 그림의 내용이나 색깔도 무척 아름다웠다. 배꼽마당은 이렇게 다소 화려하게 나를 맞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은 평화롭게 놀고 있었고 낯설은 이방인에게 전혀 낯가림없이 '언니'라는 반가운 호칭으로 어물렀다.

전체 행사에서만 본 안경숙 선생님의 모습과, 시설에서 바쁘지만 여유있게 지내시는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동글동글 단단

하고 윤이 나는 사과의 이미지를 떠올린 건 대구이기 때문일까? 아이들 노는 게 모두 보이는 창문이 있는 사무실에 마주앉아 인터뷰하기에는 좀 형식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배꼽마당이 꽤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88년 5월에 지금은 아파트촌이지만 그때는 피난민촌이고 재개발지역인 대구 북구 고성동에서 배꼽마당을 시작했어요. 탁아소 실무자 3사람과 자원활동가들이 공간의 재원을 모금으로 마련했어요. 그 지역은 아주 가난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공간사용료도 1년에 달세 80만원만 미리 내면 되는 정도였어요.

저는 89년도부터 결합했는데, 고성동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지역 이전의 고민이 되었고 노동자들이 밀집되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인 서구로 지역을 옮기고 서구에서도 3번의 이사를 거친 뒤 지금의 공간에는 95년 3월에 정착했어요. 89년에 서구로 이사를 해서 여러가지 수익사업들을 통해 거금을 손에



▶ 지난 겨울나들이때, 왼쪽에서 두번째가 안경숙 선생님.

취게 되었어요. 지금의 자산중 절반 정도를 바자회, 일일찻집, 주점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교사출자로 채워져 있어요.

처음부터 결합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배꼽마당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신건가요?

난 '교회'하면 알레르기반응을 보일 정도로 별로 종교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80년대 후반에 사회적 활동을 다양하게 한 민중교회를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어요. 교회사업으로 탁아사업을 하게 되었고 실무자로 1년 정도 일하다가 교회 탁아소가 폐원하게 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지역 교사들의 권유로 배꼽마당 실무자가 필요하길래 별 고민 없이 대구탁아위원회 간사일도 보면서 결합하게 된 게 시작이에요.

89년에 재개발지역에서의 활동을 정리하는 일부터 결합을 했어요. 초기에 너무 허둥지둥 시작했던 사업을 새 사람과 함께 전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지역설정의 작업도 시작했구요.

3번의 이사와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등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네요? 지금 대구지역위원회 대표 일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위원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소속시설은 디딤, 감나무골, 흙장난, 배꼽마당 이렇게 4곳이고 1달에 2번 대표자회의와 교육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지금은 교사들이 종말 소모임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구지역이 예전만큼 지역 활동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칼로 딱 잘라 놓은 것 같이 4곳이 좀 제각각이라 해야 되나요? 전망도 다르고 생각도 조금씩 다르고 실무자들의 활동력도 다르고 해서 지역에 대한 결합도가 전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전에 함께 했던 시설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문을 닫고 지금 결합하는 시설들은 과거 지택연이나 지금의 한국보육교사회와의 연결이 거의 단절된 상황이고 세대차도 있고요.

각각의 어린이집 사정이 더욱 중요하고 지역의 연결보다는 개별의 사업이 더욱 중요하고 설립을 할 때도 중앙과의 관계가 적었고 보육운동이나 보육사업의 맥락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논의의 전단계로서 보육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 시설의 전망과 대구지역모임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10월 중에 MT를 계획했어요. 허심탄회하게 처음부터 공통분모의 최소치를 찾아 제대로 활동하자는 결의를 모으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머리는 아프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어찌겠어요. 대구지역위원회는 아직 시설로부터 성격을 규정받아야 하고 대구지역은 혼자 있는 것도 아니

고 그렇다고 내가 대구지역위의 전부가 아니고 대표가 전부 책임지는 것도 말도 안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모색해야죠. 다시 방향정립을 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소풍, 자원활동교육, 공동캠프 등 다양한 지역공동활동도 늘 해오던 관성이 아닌 좀 더 내용을 채워서 진행해야 해요. 이전에는 실무자라는 이름으로 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활동을 모두 진행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교사들의 일과 실무자의 일이 분리되어 있어서 지역위 활동을 같은 비중으로 들 수는 없겠죠. 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논의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뭐라 할까, 베일에 쌓인 인상이라 할까. 모임에 오셔도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결혼 안하셨죠? 지금 나이가 몇이세요?

그건 나만의 비밀이에요. 자모들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알고 싶으면 개인회원카드 찾아 봐요(실제 외모로 보면 전혀 나이를 짐작할 수 없게 젊고 귀여운 얼굴이다). 결혼은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언제라도 할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나이에 아버지에게 부양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양 당해야 하니깐 그것이 스트레스죠. 참 괴롭다! (혼자밥) 주변사람들이 왜 결혼 안하느냐는 질문에는 초월했어요. 여성으로서 자기 삶을 담당하게 꾸려나가야 하는 데 경제적인 것에서 막

히니까 답답하지요.

미혼이기 때문에 자모나 기혼교사와 함께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기혼여성이 속 깊은 얘기를 잘 안하고 술자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땐 그냥 주로 듣는 편이고 동료 교사들이 기혼이라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 많아 사업을 진행하기가 수월치 않을 때는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죠. 어떻게 해소를 해야할지 해답이 잘 안 떠올라요. 기본원칙에 대한 것은 알지만 실제 딱치면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잘 안되요. 기혼여성 스스로가 배려받아야 한다고 정리하고 사적인 일에 대해서 딱쳐서 통보할 때가 제일 어렵고 이해가 잘 안돼요.

내년이면 햇수로 10년이 되는데 대구지역 탁아위원회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일에 대한 보람과 희의가 들었을 때가 있으시겠죠? 어떠세요.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89년-90년 법 개정 활동을 할 때가 제일 활기찼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활동했어요. 동료들과의 이견으로 싸웠던 것도 지나고 나니 참 별것 아닌데 하면서 기억에 남아요.



배꼽마당 안에서는 졸업생 자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자모들과 관계가 긴밀했던 자모들과 계속 모임을 해요. 아이가 24개월 때부터 자모회를 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된 자모들과 졸업생 자모모임을 하니깐 재미있어요. 이 자모회에서 비정기적이지만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고, 또 자원활동가들이 안있고 찾아오기도 하고, 후원도 계속하고, 편지도 보내오면 흐뭇하고 보람을 느껴요.

힘들 때는 94-95년 사이에 함께 했던 실무자들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혼자 남게 되었을 때예요. 같이 정리를 해야 한다는 좌절보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된다는 오기 같은 것이 발동했고, 주변의 시선도 배꼽마당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라봤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졸업생자모회를 꾸준히 진행하신다니 존경스럽네요. 보육시설에서 부모와의 연계망에 대한 전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배꼽마당 어린이집 이름이 참 독특해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 창립한 사람중에 시골 출신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는 마을 공동체를 상징하는 커다란 공터에 대한 이름이에요.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도 지역공터에 대한 정명으로 '배꼽마당'이라고 표기되었대요. 그 의미가 참 좋지요.

특이하게 남자 선생님이 계신데 어떻게 배꼽마당에서 일하시게 되었어요?(자연스레 김성민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청년이었는데 하던 일을 정리하게 되면서 혼자서 힘들 때 여러 후

배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특히 95년 이곳으로 이사할 때 김성민선생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배꼽마당에서 지역의 연대사업, 자활교육, 배꼽마당 회지발간, 차량운행, 야외수업등 내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할 정식 실무자로 96년부터 같이 일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외부 일이 없을 때는 시설 안에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는 나하고 놀고 아빠는 밥해." 라고 요구한대요. 자연스런 생활교육도 돼요.

야외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야외수업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야외수업은 1주일에 한번 대구 시내의 공원이나 학교로 가고요. 야외수업 관찰일지를 자모회때 나눠드려요. 엄마들이 야외수업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도시락 싸 주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 시설이 갖는 전문적인 차별성을 고민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야외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전시장이나, 연극 구경, 겨울 동물원 구경, 백화점 구경 등 계절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하려 해요. 야외수업에 대한 체계를 잡아 고유한 특징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몇가지 일이나 하세요?

유아반을 맡고 있고 수업 준비, 자모회 관리, 야외수업 준비, 풍물강습 받고, 교육계획안 짜고 지역일 하고... 내가 왜 결혼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지요. 일요일도 없어요.

그렇게 힘든데 왜 10년 가까이 보육일을 계속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하!하!

고생하시면서 의연하게 지켜오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세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할꺼예요. 결혼을 해도 내 일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겠죠. 그런데 뭐랄까 내 스스로의 결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대구지역이나 배꼽마당의 터줏대감처럼 여기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시선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이 일을 그만두겠죠. 앞으로 배꼽마당이 정말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전했으면 해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센터로서의 자리를 잡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양성하고 역할에 따른 배치도 하고 이것 저것 생각은 많은데, 우선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배꼽마당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야외학습도 지역과 연결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활동가들과의 연결 등 좀더 체계화 시켜야겠다는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보육교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지탁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탁연에 대한 애정도 있고 보육교사회로 전환을 논의할 때 직접 관여를 안해서 교사회에 대해 내 것이라는 짙은 애정이 솔직히 아직 없어요. 그러나 시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지방과의 긴밀함과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랄까,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중앙의 상황이나 전국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나 이외의 다른 교사들이 한 다리 걸러서 이해하는 폭이나 감은 다를거예요. 이런 차이를 해소할 수 있

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난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어려울 때가 제일 갑갑하지요.

이렇게 인터뷰는 진지함과 맞장구와 토론이 어루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했다.

배꼽마당에 마당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안경숙선생님, 개원 10주년을 맞는 내년이 새로운 도약기라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성민선생님과 대화도 많은 도움과 공부가 되었다. 깔끔한 이미지로 항상 편가를 하고 계시는 또다른 교사 김현선선생님을 보면서 마당은 없지만 든든한 기둥을 보았다.

왜 고생을 사서하시느냐는 질문에 자신도 모른다며 현답을 하신 선생님의 웃음은 보육활동이 지금의 전부라고 대답하신 거라 넘겨짚으면 팔 부러지는 걸까?

자그마한 체구에 나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젊음이 아직 있고 사람들의 도움을 소중히 생각하는 물 많고 단 사과 같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대구지역의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국보육교사회와 부회장으로 지역에서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려야지 하는 야무진 결심을 하고 나의 첫 대구여행을 마감하였다.

우리에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많기에 10년이 넘도록 아이사랑의 한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륜에서 오는 여유와 그러면서 소박하고 따뜻한 선생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늘 조직의 결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 우리의 영원한 선배보육교사이시다.

일본보육연수

2개월간 일본 보육연수!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본회와 일본 오사키의 일한보육교육회 주최로 본회 소속 4명의 보육교사가 2개월간 연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해(박천주·이현경선생님 평가)에 이어 박화명·지연선생님이 연수에서 보고 느낀점 중심으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활동을 일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보육시설, 장애, 장애아는 각각 보육소, 장애, 장애아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생활을 담은 보육을 위해

박화명 · 광주시 동구 도담도담어린이집 교사

내가 두달 연수기간 동안 몸담아 생활했던 희망의문 보육소는 일본 오사카 아베노구에 위치한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시설이다. 주택가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250명이 넘는 운동장에 3층건물 한동과 별도의 영아보육소 3층건물 한동 등 규모면에서 보자면 작은 초등학교 같다. 지역의 0세부터 5세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육하고 있고, 나로도 야간보육원(낮 12시부터 밤11시까지), 마나 유아보육원, 학동보육원(방과후 보육시설)까지 포함되어져 있다. 여러개의 보육소 숫자만큼 보육내용 또한 다채와리(혼합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병아보육(病兒保育: 아픈 원아 또는 지역의 아픈 어린이를 별도의 보육실에서 보호·간병차원에서 일시보육), 야간연장보육, 일시보육 등 다양하다. 나는 3, 4, 5세 약 90명으로 구성된 다채와리반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특히 다채와리의 세개 그룹중 약 30명의 아이들이 지내는 すみれ(스미레)그룹에서 하루 일과를 보냈다. 스미레그룹은 담당교사 2명과 함께 지내는 아이들 30명이 다시 5-6명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5-6명의 소그룹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이 혼합되어 있고 제일 연장아동이 그 그룹의 리더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자기 그룹의 어린 아이들을 보살펴준다. 그리고 그룹의 모든 아이들은 성격·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지정해 준 아이와 짝(pair)활동을 하게 된다.

다채와리반은 7명의 교사가 있는데, 각 그룹별로 1년제 담임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일별·주별로 순환되는 담당교사제로 운영된다. 아이들을 여러 그룹이나 짝별로 골고루 파악하고 익히려는 의도와 주5일 근무, 1일 8시간 노동시간, 1일 1시간씩의 휴식시간을 지키기 위한 이유 등으로

그러한 순환근무제가 일반화 되어있다.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의 근무현실과 비교해 생각해보니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그만큼 앞으로의 한국보육교사회의 과제로 생각되었다.

하루 일과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주로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며 생활하였다. 연수기간 동안 아이들이 배풀어준 환영회와 환송회, 소풍과 견학, 원내1박보육(캠핑과 비슷), 생일잔치, 지역노인과 함께 하는 칠석제, 2세아 캠프 등 여러가지 특별행사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대개의 행사들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행사 속에서 아이들의 짝이나 그룹활동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희망의문 보육소에서의 생활 이외에 보육관련시설이나 기관 방문, 지역 공동체사업·단체들과의 교류, 특징적인 보육시설 방문, 보육교사들과의 다양한 교류모임, 보육관련 심포지엄 참가 등 뜻있는 일들이 여럿 있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보육제도 발전의 여러 측면 중 하나를 배웠던 '자치노'사무실 방문이 있었다. 자치노는 일본 자치단체 노동조합으로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자체 노조들의 연합체이다. 지자체의 역사가 깊은 만큼 자치노의 활동력도 왕성하고 다양하였고 그중 보육관련 전담부서가 있어서 보육에 관한 이론 연구나 조사 및 관련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그속에서 보육과 사회제도·복지제도의 중요관계를 다시 느꼈다.

약 3일간에 걸쳐 공립보육소 1군대를 연수할 기회가 있었다. 오사카의 금문빌딩지역내에 위치한 보육소였는데 우리의 국공립과 비슷하게 처음엔 웬지 딱딱하고 어려운 듯한 느낌이었지만 우리가 연수했던 '남대강 보육소'는 보육의 내용들을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설이었다. 여러나라의 교포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속에서 민족차이를 극복하는 보육을 통해 인간관계와 사회적 평등까지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육방식에 많은 공감을 했다. 연수팀의 일본생활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성화보육소가 있는 이くの(이쿠노)지역에는 장애인 공동시설이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 많았다. 지역의 보육소에서 공생의 이념과 실천을 보고 배우며 자란 비장애아·장애아들이 성인이 되어 지역내에서 또다시 장애인 공동작업소나 인권운동, 복지운동 등을 함께 펼치며 또 그런 생각과 활동들을 지역민과 생활하는 여러 현장들을 견학할 수 있었다. 올바른 보육내용과 올바른 보육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고, 보육소 울타리 밖의 많은 현상들과 사회를 함께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보육시설들의 교사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중 남자보육교사들도 몇명 만났다. 남자교사들은 미혼도 기혼도 있었는데 한결같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보육교사의 처우나 직업인식이 낮은 한국에서는 남자보육교사들을 기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물론 일본에서도 남자보육교사가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루 8시간 근무, 적정시간 휴식, 일한 만큼의 상여금 제도 등 근무조건 및 적절한 처우는 역시 건강하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보육교사의 모습이었고 이들의 모습은 아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교사경력, 근무경력이 십여년이 훨씬 넘은 나이 많은 교사나 주임들도 꽤 있는 편이다. 그런 점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부러운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보육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 젊은 교사들이란 생각에 새삼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다. 보육교사들과의 공식·사적교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희망의문 보육소는 교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이 약 70명 정도이다. 나는 주로 다페와리 선생님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그곳의 교사들은 교육활동 계획 및 점검은 팀별로 하는 교사회의에서 하고 있었고 별도의 소모임이나 자발적 연구활동들은 없었다. 그러나 시설전체가 1년에 2번 정도씩 팀별로 보육아동관련 과제를 만들어 토론하고 하는 교사활동은 있다고 하였다. 희망의문 보육소는 특히 지역의 보육소 동맹모임이나 해외보육연수등에서 준비되고 배우는 교사교육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다페와리 90여명의 아이들은 하루일과의 절반이상을 운동장 흙과 화단의 풀과 벌레, 수돗가의 물과 더불어 보낸다. 자연물 속에서 놀잇감과 노는 방법과 또 놀 수 있는 사람관계들까지 스스로 때로는 친구나 언니·형의 도움을 받아가며 배워 나갔다. 나이·성격·장애유무·능력의 차이들을 넘어서, 비교되어지지 않는 자유로움과 평등함을 몸으로 체험한다.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씩 느껴가며 나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도구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제시하는 일들을 위해 더 고민하리란 다짐을 했었다.

희망의문 보육소에는 학동보육소를 더불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를 생활하고 담담교사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의 놀이·학습의 터전이었는데 그곳 학동 보육 운영의 주 내용은 '짜여진 시간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교교육 이후의 시간이니 만큼, 그곳에서의 생활만큼은 아이들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육은 곧 생활이다'라는 희망의문의 보육이념을 조금씩 알아나가며 지낸 두달 동안에 걸쳐 연수했던 오사카지역 보육시설 몇 곳과 타 기관 단체들에 대해 여러가지 긍정적인 고민거리와 배움들을 많이 얻은 것은 사실이다. 반면 다페와리 그룹의 생활속에서 아이와 교사간 개별교류를 다양하게 볼 수 없었고, 가끔씩 하는 활동들에서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끌어내 주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았었다. 사실 언어의 한계로 인해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지적하고 배움을 쌓았는지 회의도 들었던 보육연수였지만, 그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의 나의 임무와 생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나의 삶과 내가 속했던 공간 그리고 남겨온 우리 아이들에 대해 많이 많이 생각해 본 소중한 기회였다. 많은 사람이 가면 그 곳이 곧 길이 된다는 글 구절이 있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는 보육교사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책임감을 느끼며, 어떠한 길을,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같이 갈 수 있을까를 모두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밥과 김치를 먹는 애신 보육원아이들

지연 · 수원시 권선구 웅기종기어린이집 교사

평가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두달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더니 어느덧 두달이 다 되어 가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해오던 더불어 사는 삶

에 대한 좀더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과 사고를 가지게 되었으며, 교류회의 선생님들의 친절과 세심한 배려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또한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신보육원은 이번 연수로 처음 교류회에 참가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연수를 마친 지금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1. 애신보육원 연수평가

1) 시설에 대해

건물 1층에 영아(0세-3세), 2층에 유아(4세-5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깥놀이나 천지지변에 의한 대피면에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영아와 유아가 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풀장, 포도넝쿨로 드리워진 그늘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놀이시설과 놀이감은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엔 부족함이 없으나 조금만 넓었으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작게나마 채소밭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키울 수 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이 좁아서 혼잡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청소를 잘해서인지 오래된 건물인데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사들만의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일과중 잠시라도 휴식을 취함으로써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2) 교육에 대해

애신보육원은 교포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원이어서 아침저녁 인사나 식사시 인사를 우리말로 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한국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동요를 노래시간에 즐겨 부르며, 저와 어울릴 때면 함께 부르자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감격스럽고 고맙기까지 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반을 구성하여 반별 교육을 하고 있으나 바깥놀이(마당놀이, 공원 가기)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형과 아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교재·교구 위주의 교육보다 자유로운 활동(바깥놀이, 선택한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자유놀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늘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음악시간과 체육시간은 각 내용에 따라 아이들에게 자극이 되며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딱딱한 군대식의 분위기와 형식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어린 연령에 대한 이해를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한다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교육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내놀이의 내용이 좀더 다양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식사(먹거리)에 대해

수저보다 젓가락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밥 위주의 식사와 김치가 곁들인 것이 더욱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토피성 피부병이 심한 아이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요즘 심하게 늘어가는 아토피성 피부병, 일년 내내 달고 다녀야 하는 감

기 등의 문제로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식사에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신보육원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4) 교사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대부분이 7년-19년의 장기 근무 경력자들이시며,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교사간 교육의 내용 논의, 교사의 재충전을 위한 재교육이나 교류가 부족한 듯합니다. 또한 시설내에 예전에 쓰던 교사를 위한 휴식 공간을 다시 복원시키고 짧게나마 휴식시간을 가진다면 하루일과를 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선생님들은 서로 자매간처럼 의좋게 지내시기에 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족적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행사(소풍)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관람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은 우리와 비슷하였습니다. 개인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온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원외 연수 평가

대천시 방문과 자치노의 방문으로 한일 보육교류회의 확실한 자리 매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문의 취지와 목적을 인지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일간의 공립보육소(동화보육소)연수에서는 교재 교구를 폐품 재활용하여 만든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흐름의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아이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개인차를 인정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좀더 깊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장애 관련시설 방문 및 장애인 보육시설 방문과 장구나베모임이나 기지무나아 음식점을 가본 것은 사회속에서 진정한 보육의 확장된 활동과 참된 공생의 의미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면서

비록 말과 문화가 달랐지만 티없이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안녕하세요"하고 웃으며 인사하고 얘기를 걸어주는 애신보육원의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고, 늘 웃으며 인사해 주신 애신보육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그냥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느낄수는 없었던 교포들의 생활을 직접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과 역사,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타민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과 활동에 대해서도 커다란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연수평가를 마치고 그 동안 도와주신 교류회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보육정책

서울시 시민복지 5주년 종합계획

- 밝은 가정, 건강한 사회,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서울 -

· 서울특별시 ·

서울시에서는 종래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어온 획일적 복지시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과 사회여건 변화에 걸맞고 또 수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복지시책의 수립·시행의 요구에 따라 '시민복지 5주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글은 보육사업에 관한 부분으로 서울시의 보육사업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기회이며, 좋은 정보로 여겨지기에 실었습니다.

건강한 아동보육

1. 시책방향

기존의 단순한 보육시설 확대 공급시책에서 벗어나 여성의 사회진출, 직업형태의 다양화 등 새로운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보육시설의 공급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 특히 보육시설 입소가 절대 필요한 3세 미만의 영아보육시설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야간제, 24시간제 등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공급을 적극 유도한다.

학교 방과후 부모의 보호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여유교실과 종교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심리·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정비와 지원의 현실화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한다.

2. 시책의 체계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내실화 - 보육시설의 확충
 - 0세아 보육의 획기적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

3. 주요 추진과정

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내실화

1) 보육시설 확충

보육수요에 증가에 맞추어 구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432개소를 2001년에는 532개소로 최소한 동별 1개소 이상씩 민간보육시설은 현재 2,628개소에서 2001년에는 3,468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 5세미만의 아동 767천명중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은 532천명이며, 이중 절대적 보육대상아동은 107천명으로 수요조사결과 나타났으며, 현재 86천명(구립42%, 민간43%, 가정15%)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

보육시설현황

('97.3.31현재)

구분	계	구립	민간	직장	가정
개소	3,060	432	1,214	52	1,362
수용인원	102,741	38,880	44,891	1,434	17,536

2) 0세아 보육의 획기적 확대

현재 보육시설의 28%인 25천명 영아보육정원을 2001년까지 시설정원의 40% 확대하여 40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먼저 구립보육시설은 '구청장 입소권' 의무적 이행과 영아보육 비용지원 확대를 병행하여 2001년까지 시설정원의 40%를 영아에게 공급한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영아보육 비용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시설정원의 35%가 영아에게 할당되도록 유도하여 영아보육율을 높인다.

특히, 보육수요가 높고 절대보육이 필요한 0세아의 보육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까지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현재 40개반인 0세아반(3명 기준)을 600개반으로 확대한다.

※ 0-2세미만의 영아 358천명중 보육수요가 있는 영아는 260천명이다. 절대보육수요 영아는 45천명이며, 이중에 0세아는 11천명임.

3)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보호자의 출장, 야간근무 등의 사유로 인한 야간 또는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수요 증가에 맞추어 시간연장형 보육을 확대하여 어떠한 시간이라도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

시간연장형 보육수요에 맞추어 2001년까지 24시간제와 일시보육시설은 구별로 각각 1개소씩, 휴일제 및 단기숙박보육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로 2개소씩 설치·운영한다.

신규 구립시설은 시간연장형 보육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고, 민간법인 등을 지원·지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

※기초수요조사결과 12시간을 초과하여 보육을 받고자 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수요대상 아동은 532천명의 0.5%인 2,600명으로 파악됨.

4)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의 질 향상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사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육 전문가·자원봉사자(교사자격 소지자)로 「보육지도위원회」를 자치구별로 1개씩 구성·운영한다.

시 단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각 구 보육정보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아동보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보육시설과 일반시민에게 제공한다.

5)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민간 보육시설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700개소에 대하여 구립수준으로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여 시민의 보육료 부담의 완화(영아 325천원→185천원, 유아 175천원→104천원)를 도모한다.

또한,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놀이방까지 확대 지원한다.

6)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부설 1개소(마포 상암)와 종교단체 등 28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음악, 미술, 글짓기 등 1-2개 정도의 특기교육을 실시하면서 부모 귀가시까지 보육하고 있다.

집에 혼자 방치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과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동사무소, 복지관 등 공공시설 125개소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전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실비를 보상하고 자원봉사 교사로 활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천부모의 지도와 같은 양질의 교육효과를 얻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방과후 보육수요는 6-9세 아동 482천명중 52.7%인 253천명이다. 이중 절대적 보육대상아동은 16.2%인 78천명이며, 이중의 약 14%인 10천명은 혼자 집에 방치된 아동으로 기초수요조사결과 파악됨.

4. 5주년 추진계획

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내실화

사업명	사업내용	년차별 추진계획					
		계	'97	'98	'99	2000	2001
보육시설 확충	○ 공공보육시설 확충(동별 1개소) -432(97)→532개소(2001)	100개소	20	20	20	20	20
	○ 민간보육시설 확충 -2,628(97)→3,468(2001)	840개소	400	200	80	80	80
	사업비 (국비)	785 (82)	46 (30)	141 (13)	221 (13)	198 (13)	179 (13)
영아보육의 획기적 확대	○ 보육시설 영아정원 확대 -정원확대 : 28% 25천명→40% 40천명 -구정장 입소권 의무적 이행		28%	31%	34%	37%	40%
	○ 영아보육시설 확대·개선 -0세아반 보육시설 확충(40→600개반) -영아보육시설 개선	560개반 2,800명 250개소	50 50	100 50	150 50	150 50	110 050
	○ 장애아보육 확대 -장애아전달시설(2→5개소) -장애아통합시설(5→25개소)	3개소 20개소			1 5	1 5	1 5
	사업비	159	21	26	32	37	43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야간·24시간제·휴일제 보육 -야간보육·24시간제 보육 -휴일제 보육, 단기숙박 보육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 민간시설 설치지원 : 인건비 등 지원	25개소 8개소 25개소	3 5	5 2 5	17 6 15		
	사업비	31.2	0.6	1.5	9.7	9.7	9.7
	○ 보육교사 자질향상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 「보육지도위원회」 구성·운영 -구별 1개 ○ 시·구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존 구립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 시민 보육료 부담 경감 - 두자녀 보육료 50% 감면	7,500명 3,150개소 25개 26개소 3건 196개소 15,000명	1,500 550 25 1 36	1,500 590 25 1 40	1,500 630 25 1 40	1,500 670 25 1 40	1,500 710 25 1 40
	사업비 (국비)	1,282.3 (509.3)	224.5 (74.9)	233.3 (93.5)	253.4 (98.5)	274 (112.9)	297.1 (129.5)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구립수준(인건비의 50%)으로 지원 확대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700개소 750개반		300 100	200 100	100 100	100 100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	사업비	910	15	138	213	252	292
	○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민간단체, 복지시설 등 활용(28개소 450명 → 153개소 2,950명) -초등학교(519개교) 설치유도(교육청 협의) ※ 학부모 자원봉사교사(125명)활동	125개소 2,500명	25	25	25	25	25
	사업비(국비)	6 (9)	0.4 (0.6)	0.8 (1.2)	1.2 (1.8)	1.6 (2.4)	2 (3)
총사업비(억원)		3,173.5	307.5	540.5	730.3	772.3	822.8

어린이건강

모유 · 우유 먹이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공 ·

지난호에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발달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발달장애 및 이상에 대하여 인의원에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의 발달상태를 파악하거나 부모님들의 궁금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호에는 보내주신 글의 분량이 많아 두회보로 나눠서 둘 이전의 아이들에게 모유와 우유를 먹일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몇가지 주의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호에는 이유식과 관련한 글을 실을 예정입니다. 영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무척이나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교사들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교육용 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유 알레르기에 대하여

1) 우유 알레르기란?

우유속에 있는 단백질에 의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구토, 설사,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이에게 잘 발생하는 이유는?

성인은 장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물질이 장에 들어와도 잘 흡수되지 않지만 아이의 장은 아직 미숙해서 쉽게 침입할 수 있고 장염이 잘 발생하는 시기여서 더욱 잘 발생합니다.

3) 발생빈도 및 시기는?

유아의 약 2% 정도에서 발생하며, 우유를 먹인 직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우

유를 먹이기 시작한지 한달이나 두달 후에 발생하며 주로 6개월 이전에 잘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연령이 어릴수록 증상이 심합니다.

4)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이 오며 심하면 장출혈, 빈혈 등이 올 수 있으며 입술이나 입안이 붓고 가렵거나, 두드러기 및 발진 등의 피부증상과 재채기,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증상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고 몇시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 진단은?

우유 첨가와 제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즉, 우유를 먹이지 않으면 증상이 없어지고,

다시 우유를 먹이면 48시간 내에 증상이 재발하며, 이러한 현상이 3차례에 걸쳐 나타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문적 알레르기검사방법이 있습니다.

6) 치료는?

우유 대신에 대치식품인 특수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단백질을 일부 소화시켜 만든 메일 HA, Neutramigen, Pregestimil 등과 콩단백으로 만들어진 호프A, 소이A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상기 특수분유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예후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면역기능 및 장이 성숙되어가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 증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하며 2세쯤 되면 대부분 면역성이 생기게 되어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평생 우유를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다시 검사해서 만일 증상이 없으면 우유를 다시 먹일 수 있습니다.

8) 예방은?

모유에는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소화장애도 적기 때문에 알레르기의 발생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가족사항으로 볼 때 아이가 자라면서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면 엄마는 임신 후반기와 수유기간 동안에 우유 등의 식품을 제한하고 아이는 최소 6개월 이상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능하면 알레르기가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장이 성숙되는 9개월 이후까지 지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음식물로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닭고기, 밀가루로 만든 음식

등이 있습니다.

우유를 너무 적게 먹을 때

다른 아이들은 우유를 한번 먹을 때 많이 먹는데 우리 아이는 그만큼 먹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먹는 양이 적고 많음의 차이가 있고 한번에 몇 cc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총 얼마를 먹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총 먹는 양이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우유량은 몸무게에 150을 곱한 정도인데(예:6kg은 900cc) 혹시 이 보다 적은 양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필요한 양은 스스로 먹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나서 더 먹으려고 보채는 증상이 없고 잠을 잘 자고 잘 놀며 꾸준히 몸무게가 증가한다면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생후 수개월 동안은 체중도 잘 늘고 먹는 양도 상대적으로 많으나 아이가 커감에 따라 체중의 증가율이 떨어지며 먹는 양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유식을 먹게 되면 우유를 먹는 양이 더 줄어들어 전에 잘 먹던 아이도 우유병을 들이대면 고개를 돌린다는가, 낮에는 조금 먹고 밤에만 먹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유식 및 성장과정의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유를 잘 먹지 않더라도 이유식을 잘 먹고, 체중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식 초기, 중기에는 이유식만으로 여러가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기가 아니므로 우유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이는 것이 좋으며, 이유식의 잘못으로 영양(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발생해 잘 먹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젖을 먹던 아이에게 젖을 떼고 갑자기 우유를 먹이게 되면 지금까지 빨던 젖꼭지와 우유병 젖꼭지가 달라서 아이가 우유병을 잘 빨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고무젖꼭지를 주거나, 젖을 떼기 전에 우유병으로 먹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돌이 되면 어른들처럼 밥이나 다른 고형식만으로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때 우유를 많이 먹이면 칼로리가 많은 다른 음식을 먹을 기회가 적어져 오히려 영양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상없이 체중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아이가 우유를 조금 먹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우유를 많이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 아이가 원할 때 간식으로 조금씩 먹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갑작스럽게 먹는 양이 줄었다면 감염 등 질병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유를 너무 많이 먹을 때

우유를 안먹어서 걱정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유를 너무 먹어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번에 먹는 양이 표준양보다 더 먹어서 걱정인데 먹는 양은 아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에 필요한 우유의 양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같은 또래에 비해서 한번에 먹는 양이 많더라도 먹고 나서 토하지 않고 잠을 잘 잔다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유를 조금 줄여주었을 때, 아이가 보채고 잠을 잘

자지 않는 등의 현상이 있다면 이 아이는 생리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우유를 필요로 하는 아이기 때문에 조금 많더라도 아이의 요구대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총 먹이는 양이 지나치게 많고 먹는 횟수도 많으며 다른 이유식도 잘 먹는다면 소아비만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과 성인병에 영향을 끼치므로 칼로리의 과잉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가 비만인 경우에는 몸무게를 한 달 간격으로 측정 기록해서 지속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먹이는 우유의 총량은 1,000cc가 넘지 않도록 하며, 1회 먹이는 최대량은 240cc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보채고 울 때는 우유를 주지 말고 물이나 오렌지 주스 등을 먹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유를 섞어 먹이는 것에 대하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엄마젖이며, 엄마젖에 가깝게 아이에게 맛도록 가공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유입니다. 그런데 각 회사 분유의 제품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성분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특수성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제품을 섞어 먹이면 두 제품의 좋은 점을 모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섞어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섞어 먹여도 아이가 잘 먹고 설사증상도 없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이 잘 자란다면 섞어 먹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분유의 성분은 가격의 차이나 특수성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의학적으로 분유를 섞어 먹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섞어 먹었다고 좋은 점도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회사 제품을 선택해서 먹여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미숙아, 설사, 알레르기, 선천성 대사이상 등에는 특수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이때는 소아과 의사의 진료후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성분을 고루고루 먹이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분유에 두유를 섞어 먹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만일 분유에 두유를 섞어 먹여도 아이가 잘 먹고 구토·설사가 없으며 몸무게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두유를 섞어 먹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두유는 4-6월이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고, 분유와 두유의 차이점은 단백질이 식물성이라는 것인데 건강한 아이에게 꼭 식물성 단백질을 먹여야 하는 이유가 없으며, 두유를 먹인다 할지라도 분유에 꼭 섞어 먹여야 할 이유가 없고, 부작용이 발생시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로 먹이기를 권해 드립니다.

두유에 대하여

두유와 우유의 가장 큰 차이는 단백질이 식물성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아이에게 두유를 먹인다고 영양학적으로 특별히 좋은 점이나, 안먹었다고 해서 특별히 나쁜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유를 먹여야 하는 경우는,

- 1)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우유를 먹이면 설사하는 아이
- 2) 우유 단백질 알레르기로 설사하는 아이

3)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이 있는 아이

4) 채식주의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 등으로 정상적인 아이에게는 꼭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유를 먹이면 아이가 성장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적다는 설도 있으나 후에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두유를 잘 소화하고 잘 먹는다면 두유를 먹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4-6개월은 넘어야 두유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두유가 분유에 비해서 고루고루 영양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인 보충식으로 적절히 먹여야 합니다.

요구르트는 언제부터 먹이 는가?

신생아들의 장은 아직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아무 음식이나 먹이게 되면 소화 흡수할 수 없게 되어 토하거나 설사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4-6개월이 되면 장이 성숙하게 되어 아이에게 특별히 가공되지 않아도 음식을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어서 이유식 등 여러가지 음식을 먹여볼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우유를 살균 후 유산균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식품으로, 소화가 잘 되며 우유와 비슷한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언제부터 먹여야 한다는 규정보다는 보충식의 한 식품으로 생각하고 아이의 장이 성숙하게 되는 6개월 이후부터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를 많이 먹여서 이빨이 삭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요구르트 자체가 치아

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요구르트에는 당분과 유산균이 많아서 입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만큼 이빨이 썩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구르트를 먹은 후에는 물로 헹구어 내거나 잠자기 전에 거즈 등으로 닦아주거나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우유는 언제부터 먹이는가?

생후 1년까지는 모유가 아이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모유를 못먹이는 경우, 분유도 엄마젖에 가깝게 가공되었으므로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분유는 우유 성분 중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성분은 더 보충하고, 필요 이상으로 들어있는 것은 감소시키고, 소화가 안되는 물질은 소화가 잘 되도록 가공한 것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아이의 장은 미성숙 상태이므로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너무 일찍 먹이면 소화를 잘 시키지도 못하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아이가 4-6개월이 되면 아이의 장이 성숙하게 되어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어느정도 소화시킬 수 있고, 이 시기에는 모유의 분비량이 줄고 아이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젖만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유식을 포함한 여러가지 음식을 먹이게 되는데 특히 생우유는 아이가 6개월이 되면 소화·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아이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우유는 아이에게 필요한 철분이나 비타민 등이 거의 없으며 우유 알레르기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

하면 12개월 전후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우유를 먹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생우유를 음료수로 생각하여 아이에게 무한정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음식을 먹는 기회가 적어져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아이의 성장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며 철분 부족이 발생해 빈혈 등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부족에 의해 빈혈이 오게 되면 주의력집중이나 학습능력 등 지능에 영향을 주게 되며 한번 야기된 지능장애는 회복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생우유는 주식인 보충식으로 먹여야 하며 아이가 섭취하는 전체 영양의 1/4 - 1/3 한도내에서 즉, 하루에 대략 500cc 정도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우유를 먹고 난 후 부작용으로는 변비(20%), 설사(10%), 혈변(1%)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생우유는 꼭 먹여야 하는 식품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생우유를 먹일 필요는 없으며 아이의 면역능력 및 장이 더 성장한 후에 다시 먹일 수 있습니다. 혈변이 생기는 경우는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음식을 고루고루 충분히 먹이지 못하는 경우라면, 모유나 분유만을 1년 가까이 먹이는 것이 더 좋으므로 생우유를 너무 과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찬 우유를 먹여도 좋은가?

찬 우유를 먹이면 장이 튼튼해진다는 이유로 찬 우유를 먹이는 경향이 있으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찬 우유를 먹이면 안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우유를 반드시 덥혀서 먹일 필요는 없으며 냉

장고에서 바로 꺼내어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젖을 먹는 아이는 항상 일정하게 따뜻한 온도의 젖을 먹고 있으며,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찬 우유를 먹이게 되면 체온조절이 약해서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유는 차갑게 먹일 수도 있으며 덥혀서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장단점에 대해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대부분 40℃ 정도로 온도로, 즉 손목에 떨어뜨려 따뜻할 정도로 먹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덥힐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전자레인지에 덥히게 되면 균일적으로 덥혀지지 않아서 아이가 입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중탕을 해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다 남은 우유는 어떻게?

분유는 무균상태이므로 개봉하지 않은 것은 냉장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한번 사용해서 개봉되면 세균감염 및 변질 우려가 있으므로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오래전에 개봉했던 것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분유가 무균상태라 할지라도 물과 혼합하게 되면 혼합하는 여러가지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물과 혼합된 우유는 냉장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서 1-2일 동안 안전합니다.

그러나 물과 혼합된 후 아이가 한번이라도 빨았던 우유는 입안의 타액 등과 섞여지게 되어 변질 및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으며, 아이는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서 변질된 우유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아이가 몇번 빨다가 남은 우유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할지라도

양에 관계없이 다 버리고 다시 타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분유(설사, 알레르기)에 대하여

1) 일반분유

아이에게 필요한 성분은 더 보충하고 필요 이상의 성분은 감소시키며, 소화가 잘 되도록 가공해서 엄마젖과 가깝게 만든 우유입니다.

회사 제품마다 조금씩 성분의 차이는 있으나 성분차이에 의한 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이고 아이에게 필요한 중요한 기본성분은 제품마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 제품을 먹여도 좋습니다.

2) 설사 특수분유

설사를 하면 장의 기능이 떨어져 소화·흡수에 장애를 가져오고 수분 및 전해질의 손실이 발생하며 영양결핍이 오기 쉬운데 이때 일반분유를 먹이면 더욱 설사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할 때는 특수분유(호프D, MFI)를 먹여볼 수 있는데 이 특수분유는 유당을 적게 하거나 분해시키고 단백질을 특수처리하고 전해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강한 것으로 설사시 소화·흡수가 잘되고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나 설사가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분유는 설사하는 아이에게 알맞게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뽕 것은 빼서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2-3일 동안 설사를 하지 않으면 일반분유를 점차적으로 섞어가면서 일반분유로 바꾸어 먹여야 합니다.

3) 우유알레르기 특수분유

아이들은 장이 미성숙해서 우유에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의 원인인 단백질은 특수처리한 분유입니다. 즉, 단백질을 특수 가수분해한 제품(예: HA, HA-21)과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한 제품(호프A, 소이A)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분유는 우유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 등 특수질환에 사용하도록 개발된 제품이고, 우유 알레르기가 있을 때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먹어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아이가 분유나 젖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상기 특수분유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특수분유는 일반 조제분유와 성분과 열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돌때까지 일반분유 대신 먹일 수 있으나 유제품 등 이유식의 선택에도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젖 먹이는 시간 간격에 대하여

모유를 먹이는 경우, 특히 모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아이가 보채고 울 때마다 젖을 물리면 물릴수록 젖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젖을 자주 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2시간 반 이하로 자주 먹이면 젖 분비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젖의 양이 적어지므로 너무 자주 먹이면 안됩니다. 아이에게 너무 자주 먹이면 아이가 자주 먹는 식사습관에 익숙해져서 식사 시간만 되면 저절로 깨서 젖 달라고 보채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밤중에 깨어 우는 원인 중의 하나가 자주 먹는 식사습관에 익숙해져 있

어서 밤중수유가 필요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동적으로 깨서 울게 됩니다.

자주 먹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적게 먹이면 안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하루 6회 이하로 적게 먹이면 아이가 영양 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먹이라"하는 것이 일반적인 육아지침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한 시간이 되기 전에 배가 고파할 때에는 먹여도 좋으나, 그렇다고 아무 때나 무질서하게 먹여서는 안됩니다. 생후 1달까지는 자주 먹이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자율적으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병 소독에 대하여

우유는 모두 다음으로 영양분이 충분한 식품이지만 세균도 잘 자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만약 젖병을 잘 소독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우유 찌꺼기에 세균이 기생하게 되고 아이는 세균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유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우유제품이나 수유기구를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우유캔의 윗부분을 비누로 닦고 뜨거운 물로 씻어 낸 후에 사용하며, 우유에 섞는 물은 5분 정도 끓인 것을 사용합니다. 모든 수유기구는 5-10분간 끓여야 하며, 고무젖꼭지와 뚜껑은 5분 이상 끓이면 안됩니다. 수유가 끝날 때마다 우유병과 젖꼭지는 바로 물로 헹구어 내고, 물이나 세정제로 바로 깨끗이 닦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유병에 물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를 끓을 때까지 상기 방법대로 하면 엄마들의 잔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 1) 아이가 5개월경이 되어 이것 저것 입으로 가져가서 빠는 시기가 되었고
- 2) 분유를 탈 때 끓인 물을 사용하고,
- 3) 미리 씻어 놓은 우유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유 직전에 깨끗이 씻은 우유병을 사용한다면,

우유병을 꼭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우유를 사용할 때는 우유병을 꼭 소독할 필요는 없으며 우유병, 젖꼭지, 식기 등을 잘 비벼서 닦는 위생적 처리를 해도 좋습니다.

큰 용기에 담아있는 생우유를 사용할 때에는 내용물이 잘 섞어질 수 있도록 위·아래로 흔들고 개봉부위를 뜨거운 물로 씻어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의 그릇, 수저 등도 번번히 소독을 하면 좋으나 생우유의 기준에 따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병을 물고 자면 안됩니다.

우유는 아이들에게 영양분이 풍부한 식품이나 세균도 잘 번식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아이가 우유를 먹게 되면 평상시에는 바로 삼키기 때문에 입안에 우유가 남아있지 않으나 우유병을 물고 자게 되면 입안에 우유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 세균이 번식하게 되어 충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우유병과 혀의 위치로 인하여 아랫치아보다는 윗치아에 충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을 자면서 먹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다면 잠이 들면 빨리 우유병을 빼줘야 합니다.

밤중에 수유를 해서 충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유가 입안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생기는 것이므로 낮에 잘 때도 빼줘야 하며 낮

에 놀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우유를 먹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수유가 이루어졌다면 우유를 먹고난 후 따뜻한 물을 2-3모금 먹이는 것이 좋고, 잇솔질을 아직 해주지 못하는 시기의 아이는 가제수건으로 치아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 젖을 먹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젖꼭지와 우유병 젖꼭지의 혼동

아이가 엄마 젖꼭지나 우유병 젖꼭지를 빨 때 똑같은 입의 근육이 작용하게 되나 서로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유병에만 익숙해지면 나중에 엄마젖을 먹이려고 해도 빠는 기술이 달라서 엄마젖을 잘 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젖꼭지 혼동이라고 합니다.

엄마젖을 잘 빨지 못하니까 젖이 잘 비워지지 않고 젖이 비워지지 않았으니 젖이 잘 안나오게 되고 젖이 잘 안나오니 아이는 더 젖을 안 빨려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 젖을 먹이지 못하고 우유를 먹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분만후 젖이 적다고 우유병으로 우유를 주게 되면 아이가 빨기 쉬운 우유병에 적응이 되어서 엄마 젖을 더욱 먹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유병으로 먹이지 않고 수저로 떠서 먹이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우유병은 잘 빨고 젖은 안 빨려고 하면 아이의 입의 위치를 변경시켜 보면 잘 빠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 젖만 먹이던 아이에게 갑자기 우유병을 빨게 하면 역시 혼동이 와서 우

유병 빨기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모유를 먹다가 우유를 먹일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 1개월경에 우유병으로 먹이는 것을 시도해서 아이가 혼동에 덜 빠지고 우유병에도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유병 시도의 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이유식을 먹일 때에도 우유병으로 먹이지 말고 반드시 수저로 떠서 먹이거나 컵으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토할 때

신생아들은 위와 식도 하단부가 잘 성숙되지 않아서 젖을 먹고 토하는 증상이 생리적으로 흔히 나타나며, 너무 많이 먹이거나 트림을 시키지 않았을 때도 잘 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성장장애 없이 체중이 잘 늘고 토하는 것 이외에 잘 먹고 잘 자며 다른 증상이 없으면 특별한 치료 없이 기다리면 대부분 성장하면서 좋아집니다.

젖을 먹인 후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거나, 주위의 환경이 소란스럽거나, 부모의 싸움 등이 있을 때에도 아이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토할 수 있으므로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이면 위에 부담을 주어서 토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자주 먹도록 해야 하며 트림도 수유 중과 수유 후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젖을 먹인 후 아이를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해주면 먹은 젖이 식도쪽으로 향해 쉽게 토하게 되며, 수유 후 엎드리거나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로 해주면 젖이 장쪽으로 향해 잘 토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트림도 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젖을 먹고 잘 토하는 아이는 수유 후에 오른쪽 또는 엎드리 놓는 것

이 좋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전의 아이는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리 놓을 때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은 식도하부가 미숙하여 먹은 젖이 쉽게 역류되어 게우거나 토하는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를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은 1세 미만의 아이에서 생리적으로 나타나는데 성장하면서 대개 6-7주만에 좋아지고(70%), 대부분 6개월까지 호전됩니다.

그러나 체중이 정상적으로 늘지 않거나, 단순히 게우는 증상이 아니라 왈칵 뽀어내듯이 심하게 토할 때, 피가 섞여 있거나 노란색으로 토할 때, 열, 설사, 변비, 복통 등이 동반될 때 등은 질병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소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양제와 정장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영양제나 정장제를 꼭 먹여야 되는 보약(?)으로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은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부분별한 사용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젖을 먹일 때는 엄마젖에 아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고, 분유를 먹이는 경우에도 분유 속에 비타민 등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충분히 보충되었기 때문에 4-6개월 동안에는 영양제를 따로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4-6개월 이후의 아이라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만 젖이나 분유에서 부족한 영양소는 이유식을 그런대로 먹기만 한다면 이유식에서 충분한 양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아이

가 잘 놀고 몸무게도 꾸준히 증가한다면 영양제는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서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먹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잘 먹지 않는 대부분의 원인은 질병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으며, 밥을 잘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양제를 먹여야 할 정도로 영양결핍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밥을 잘 먹게 한다는 목적으로, 또는 영양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이유로 영양제를 먹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영양제가 필요한 아이도 있습니다. 미숙아인 경우에는 얼마로부터 받은 영양소가 적고 성장이 빨라서 많은 영양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 영양제를 먹이는 경우가 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여야 합니다. 만성질환을 앓을 때나, 체중감소가 현저하게 있을 때에도 비타민이나 철분약 등 영양제를 먹여볼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원인에 따라 적절한 영양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먹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등의 영양제는 우리 몸 안에서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는 거의 부족하지 않고, 만일 필요 이상의 비타민이 섭취되면 대부분 소변 등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며 어떤 성분은 축적이 되어 오히려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먹고 잘자며 무럭무럭 잘 자라는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여 더욱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효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양제의 부분별한 사용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자기 자식들이 별탈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더 건강하라고 영양제를 먹이는 경우는 거의 없

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려서 소화력이 떨어진다거나 장이 튼튼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정장제를 먹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정장제 역시 아이들에게는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신생아의 장은 성숙되지 않아서 다른 음식을 먹이면 소화흡수 장애가 올 수 있지만 얼마의 젖은 소화흡수가 아주 잘 되며 분유 또한 소화흡수가 잘 되도록 가공되었기 때문에 4-6개월 동안에는 소화제를 먹이거나 정장제를 따로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식을 먹는 시기에도 아이의 장은 점차 성숙해져서 이유식을 충분히 소화·흡수할 수 있으며 돌이 지나서 밥을 먹는 시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느 음식을 주어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장제는 설사나 구토 등 장염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꼭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과 건강

질환별 영양관리(1)

남상미 · 안산보육정보센터 영양사

영·유아시기에는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쉽고, 또한 질환으로 인한 영양관리가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만성 또는 급성질환시 영양관리를 위해 보육시설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식이요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신 남상미선생님은 안산보육정보센터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계시며, 다음호에도 화상, 빈혈, 충치, 비만시의 영양관리에 대해 기고해주시 예정입니다.

설사

어린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설사의 원인으로서는 장의 자극, 여행과 같은 규칙적인 생활에서의 변화, 스트레스, 감염, 식중독 등을 들 수 있다. 이때는 설사 치료를 위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적당한 식이요법이 도움이 된다. 특히 설사와 함께 37.5℃ 이상으로 체온

이 올라가고, 하루 이상 구토가 계속되면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수분이 포함된 설사를 할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심한 설사의 경우는 24-48시간 동안 아무 것도 먹이지 말고 정맥주사로 전해질과 수분을 공급해준다. 미약한 설사시에는 24-48시간 동안만 음식을 제한하고 탈수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한 액체를 공급한다.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료는 장의 연동작용을 증가시켜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실온과 같은 온도의 액체가 좋다.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경과 시간	식사계획
처음 8-12시간	반식간 또는 매시간 15-30ml의 액체(약간의 설탕을 넣은 얼은 차, 설탕물, 이온음료 등) 공급
12-24시간(매번 횟수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거나 감소)	맑은 유동식을 2시간마다 60-90ml씩 증가
24-36시간(증세가 명확하게 호전)	젤리, 바나나, 사과소스, 크래키 등의 당백한 고체 또는 반고체식품
36-48시간	점차 정상적으로(토스트, 감자, 흰밥)
3-5일	점차 우유제품 첨가

음식을 먹게 됨에 따라 처음에는 약간의 설탕이 포함된 수분을 공급하다가 점차 섭취량을 늘려 간다. 특히 처음에는 당질 또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제한해야 할 뿐 아니라 소화 및 흡수가 어려운 섬유소 등을 제한하는 저섬유소식이나 저잔사식(변의 양을 적게 하는 음식) 바람직하다. 사과 중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은 수분을 흡수하여 점도

있는 변을 만드는 작용을 하므로 좋은 식품으로 권장된다.

알레르기

체내의 면역계가 식품내의 단백질 또는 기타 거대분자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히스타민이나 기타 대항하기 위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며,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알레르기의 주요원인은 주로 식품이다. 어린이의 경우, 우유알레르기가 가장 흔하고 다음이 달걀흰자, 감귤류, 초콜릿, 해산물, 밀가루 및 견과류 알레르기의 순이다. 그밖에도 콩류, 땅콩, 닭고기, 생선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식이요법

- 가장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의심이 가는 식품을 식사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 병의 원인으로서 의심할 만한 식품은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조리해서 먹도록 한다.
- 가능한 모든 재료는 신선한 것을 사용한다.
- *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을 제거하는 대신 그 식품에 들어있는 주된 영양소가 함유된 다른 대체식품을 충분히 먹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우유단백질 알레르기 : 모유내에는 면역글로블린의 하나인 IgA는 항원의 침입을 막아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모유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없으므로 완전모유영양은 식품 알레르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어린이의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이유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이유식은 4-6개월 이후에 주어야 하며 일찍 이유식을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으로 이유 초기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쌀, 보리, 귀리를 주고 그후에는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가장 나중에 고기종류를 주는 것이 좋고 우유, 계란, 생선, 고기, 밀은 생후 9-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는 것이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만성위염

주로 음식물에 대한 부주의, 무관심 등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으며,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먹었을 때와 너무 맵거나 짜게 먹었을 때 일어나기 쉽다.

식이요법

- 어떤 음식이라도 잘 씹어먹는다.
- 너무 맵고 짠 음식을 피한다.
- 한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여러번에 나누어 조금씩 오래 씹어 먹는다.
- 생선, 두부, 감자, 과일, 달걀 등을 먹는다.

탈수증

탈수증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체액을 잃어, 그 보충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체액에는 수분과 같이 용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체액을 잃게 될 때에는 수분과 전해질 양쪽을 모두 잃게 된다. 따라서 탈수증의 증상에는 수분상실에 의한 증상

과 전해질의 상실에 의한 증상과 전해질의 상실에 의한 증상이 있다.

식이요법

- 탈수증의 정도가 심할 때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의 중심은 수액요법에 의한 수분,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포유량이 감소되거나 설사 등으로 신장 이외에서 수분상실이 커졌을 때에는 우유를 뜯겨 타서 먹인다. 따뜻한 브리치나 주스를 충분히 먹일 필요가 있다.

급성위염

음식물을 부주의하게 먹음으로서 생기는 일이 가장 많은데 부패된 음식물이나 잘 익지 않은 과일 등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난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특이체질이 있어서 딸기, 달걀, 계, 생선 등 일정한 음식물을 먹으면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

식이요법

- 먼저 원인을 찾아내고 약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 심신의 안정과 심할 경우는 절식해야 한다.
- 설사를 할 때에는 탈수가 되기 쉬우므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 구토를 일으키게 하여 토해낸 후 24-28시간 동안 미음, 우유 등을 먹인다.
- 위염이 생긴지 4-5일이 지난 후에는

우유, 크림, 죽, 토스트, 버터, 파즙, 끓인 사과, 달걀, 두부 등을 먹인다.

영아습진(아토피성피부염)

영아습진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영아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성 증상으로 2세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2세 이후에는 흔하지 않다. 주로 인공영양아가 모유영양아에 비해 잘 나타나며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자주 발생하고 지방조직이 많은 건강한 영아에게서 빈발한다.

식이요법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이나 환경과의 접촉을 방지해준다. 예를 들면 초콜렛, 달걀, 오렌지 주스 같은 감작(편주:어떤 항원을 예민한 상태로 만드는 일)을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고 동물의 털이나 먼지도 피하도록 한다.
- 수유시에도 안고 먹이고 가능한 많이 안아주도록 하며 연령에 맞는 놀이 자극을 주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당뇨병

소아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β 세포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몸 안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에서 섭취한 열량소, 특히 당을 몸조적으로 저장할 수 없어서 혈액속에 당분농도(혈당치)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되어 열량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당을 배설하는 질병이다.

영양관리의 목표는 (1)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 (2)키와 연령에 맞는 체중의 유지 및 달성, (3)고혈당증 및 저혈당증의 예방이다. 식사처방에 맞추어 식사계획, 교육, 추후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양관리는 인슐린 요법, 규칙적인 운동 및 활동, 정서적 안정과 함께 당뇨병 치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이요법

- 매일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 설탕과 설탕이 들어 있는 음식은 피한다. 설탕, 과당, 포도당, 꿀, 시럽은 단맛을 내지만 혈당을 높이므로 단맛을 내는 음식에는 아스파탐을 사용한다.
-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한다. 식사 후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조절을 돕는다. 섬유소를 먹으려면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흰빵보다는 브리치, 통밀빵, 옥수수빵을, 그리고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이용한다.
- 콜레스테롤,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인다. 훈제햄, 런치미트, 소시지 등의 섭취횟수를 줄이며 고기의 지방을 제거하고 먹는다. 베이컨, 버터, 라이드보다는 식물성 기름(식용유, 참기름)을 사용한다.
-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갖는다. 음식

은 싱겁게 조리하며, 짠 과자나 가공식품은 줄여서 먹는다.

- 외식시에는 본인의 허용 열량에 맞는 음식을 선택한다.

특히 운동이 증가된 경우에는 하루 섭취열량과는 별도로 음식물을 더 먹어야 하며 식품이나 음식에 대한 평면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식사습관의 형성을 위하여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다.

[찾고 있습니다]

백과사들의 대변자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우리네 아이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재치있는 사람, 글씨게 좋아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발 넓은 사람 등
뭔가 이로운 욕망에 사로잡힌 분을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분, 연락주세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02)275-8506

현장교육

전래동요와 창작을동을 아이들과 함께...

최응겸 · 전주시 덕진구 금압어린이집 교사

연구하는 교사에게 전복의 놀이사랑보과에서는 우리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영경선생님께서 전래동요와 놀이사랑보과에서 창작한 손유희 자료를 부끄럽다는 겸손의 말씀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일간지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 이처럼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교육내용을 만드는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내용이 있으면 회원들과 나누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희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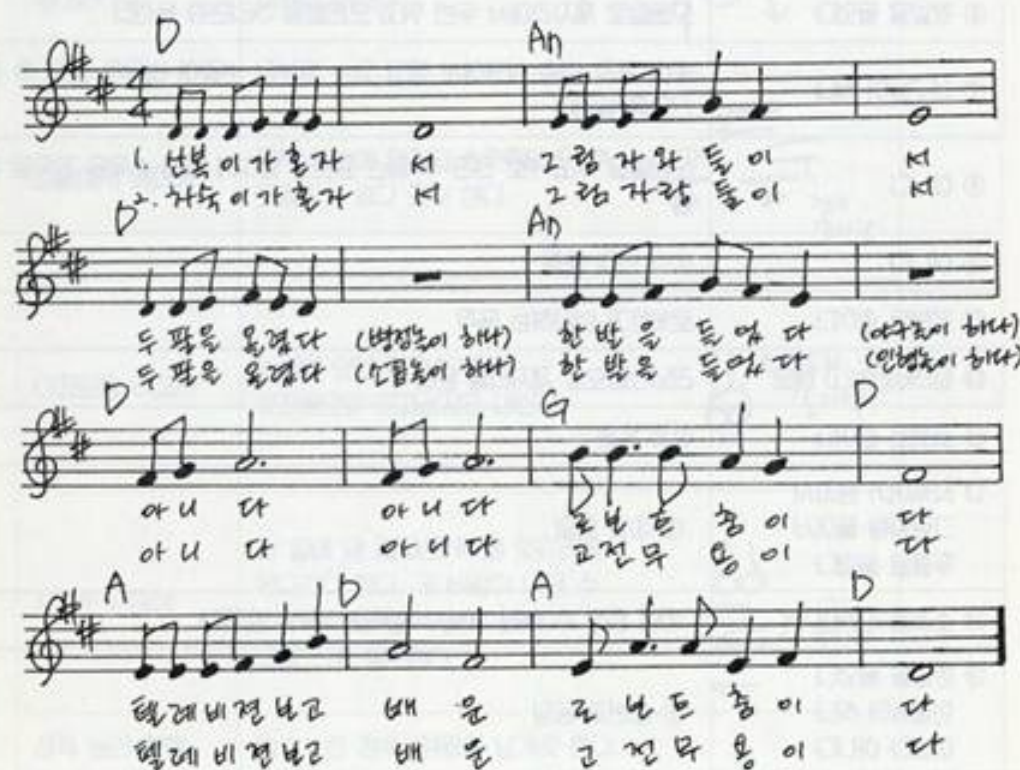
얼마전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지냈던 몇가지 구전동요가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세세 아침비림 찬 바람에' 등 동요연구가 전하는 소식은 '어머 어머'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했다. 특히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터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집에 왜 왔니?' '숨바꼭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등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며 행해지는 놀이인데, 지금껏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일제식민지 지배하에서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는데 불렀던 노래를 가르쳤단 말인가? 슬픔과 함께 어처구니가 없었다.

우리 놀이사람본과가 지향하는 점은 첫째, 우리나라 민족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놀이나 노래, 율동, 손유희 등을 통해 민족적 정서를 갖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공동체 속에서 생활한다는 혼자서 또는 기계화 놀아갈 때 우리 아이들의 정서는 얼마나 삭막할까? 둘째, 우리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공동체놀이 속에서 자유로움과 엄을 주기 위함도 있다. 셋째, 소비와 향락문화로 변색되어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미량한 놀이문화가 없다. 건전한 놀이와 노래 등을 보급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매개체로써 공동체놀이나 노래, 손유희 등을 발췌하고 보급하는데 힘쓰며 여러가지 것들을 창작하려고 모임을 갖는다.

그중에서 '별뚱별 (창작)'이라는 손유희와 '오누이 (율동창작)'를 선보이려 한다. '별뚱별'은 얼굴

의 근육과 표정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며 '○○에게 날아갔어요'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출석도 확인할 수 있다. '오누이('새날을 열어갈 우리 아이들, 노래테이프에 실림)'는 가사가 재미있으며 특히 2절에서 우리나라 고전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가락도 쉬워 아이들이 쉽게 노래하면서 따라 할 수 있다.

오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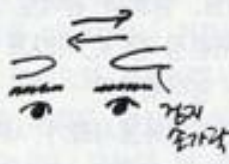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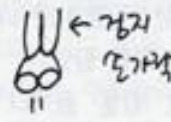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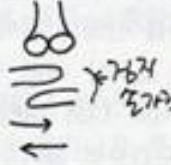
오누이 율동

가 사	동 작
① 산책이가 혼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좌우손 차례로 앞으로 내민다.
② 서	① 동작에서 양손을 번갈아 앞으로 내밀었다 끌어당기며 엉덩이를 흔든다
③ 그림자와 둘이서	좌우로 각각 3번씩 같은 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고 얼굴 앞에서 활짝 펴며 발 뒤꿈치를 짚는다
④ 두팔을 올렸다	한팔씩 어깨를 치고 위로 쭉 뻗는다(만세)
⑤ 병정놀이하나	④번 동작에서 양손 엄지와 검지를 펴고 위, 양옆으로 찌른다.
⑥ 한발을 들었다	오동발로 제자리에서 두번 뛰고 오른발을 허리만큼 올린다
⑦ 아구놀이 하나	⑥번 동작 멈춘 상태에서 들고 있는 발부터 번갈아 바닥에 포인 후 허리 선만큼 올린다
⑧ 아니다	오동발을 하고 1보 전진 후 양손 앞으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좌우로 흔든다
⑨ 아니다	⑧의 반대 동작
⑩ 로봇트 춤이다	로봇트가 인사하는 동작
⑪ 텔레비전보고 배운	리닝스텝으로 제자리를 돈다
⑫ 로봇트 춤이다	⑩과 동일
⑬ 사육사가 혼자서 그림자랑 둘이서 두팔을 올렸다	①-④과 동일
⑭ 소꿉놀이 하나	④번 동작 후 머리 위에서 손목을 좌우로 흔든다
⑮ 한발을 들었다 인형놀이 하나 아니다 아니다	⑥-⑨번과 동일
⑯ 고전무용이다	어깨춤(아리랑)
⑰ 텔레비전보고 배운	①과 동일
⑱ 고전무용이다	⑥과 동일

창작 손유희

별똥별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술밭에서 놀다가 미끄럼을 타고서
시원한 바람에 깜짝 놀라 훨훨
○○에게 날아갔어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손을 위로 올려 반짝거리며 아래로 내린다. 
술밭에서 놀다가	양쪽 눈썹에 양검지 손가락을 댄 후, 엇갈리게 왔다 갔다 한다. 
미끄럼을 타고서	눈썹에 있던 검지손가락을 콧잔등으로 미끄러지듯 내린다. 
시원한 바람에	코 밑에 양 검지손가락을 엇갈리게 왔다갔다 한다. 코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코에 힘이 들어가도록) 코를 잔뜩 찌푸린다. 
깜짝 놀라 훨훨	박수 1번 친후, 양팔을 날개짓 한다.
○○에게 날아갔어요	날개짓을 하며 교사가 부르는 아이에게 불을 수 있도록 한다.
평가	

* 특별한 음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음률을 타서 자유로이 하시면 됩니다.

▼▼▼▼
현장소식

변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힘은, 서로를 보듬고 함께 하려는 서로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문유미 · 인천보육교사회, 회장

97년 7월 초 예술어린이집으로 전화가 왔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 시민위원장 강○○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얼마전 인천보육교사회가 사무실을 함께 쓰고있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의 본부에서 상근하는 강선배를 1차 대면한 후 갑작스런 전화방문이라 나는 사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약속장소로 길을 옮기니 강선배는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얼마간은 그분과 나의 생활 나눔이 있었고, 첫 대면에 어려워하던 나를 선배는 세세하게 배려를 해주셨다. 나의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회장으로서의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물어오는 물음에 대답하며 끝끝내 긴장을 풀 수 없었던 것은 나의 인간관계의 경직성이 그대로 들어난 것이리라.

이야기 끝자락에 하안봉투 하나를 내게 내밀어주시며 하는 말, "보육교사회가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는 그랬다. 94년 10월에 결성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시민모임'은 그 당시 인천지역내의 60여개단체가 참가하여 발족되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더디게 사업진행이 되었다 한다. 이 시기 다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단체들과 새로운 각오로 재출발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보육교사회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글쎄요. 저희는 지금 새로이 변화된 조직내부의 문제로도 정신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무덤덤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다. 가슴 속 더 강하게는 '연대'라는 것이 '이름' 빌리기 또는 '회장 개인의 일'로 끝나버렸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운영 위원들과의 회의를 걸쳐야 한다면 그날 제가 잠깐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제 조직의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차분히 풀어가는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보육교사

회 사정에 맞게 결합할 방법은 함께 고민할 수 있느니 꼭 깊게 생각해주세요"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보육교사회 운영위가 있던 날 긴급하게 안전으로 올랐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지금 내부를 충실히 다져야 하는데 힘의 분산에 대한 우려와, 회장 개인의 일로 연대 사업을 풀어냈던 과거를 비판하며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한 운영위원은 반론을 제기했다.

"그 시민위원장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 조직에 이런 제안을 했다면 우리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함께 보내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조직 안에서 보는 조직 진단은 객관성을 담보해내기 부족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 밖에서 우리 조직을 냉철하게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연대하는 사람들과 단체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연대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런 만남이 우리 조직을 살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운영위에서 결정은 나지 않았다. 조직 내부다지기가 올해 계획이었으므로 다른곳에 눈을 돌릴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

그날밤 반론을 제기한 운영위 한 명과 술을 마시며 그 이야기를 다시 해보았다.

"그 모임에 나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조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 우리 조직은 아직 많이 부족하잖아. 너 혼자 우리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자만감에서 벗어나서 도움을 기꺼이 받아오라 말이야."

순간 가슴에 충하고 무언가가 무너져 버렸다. 내 자신에 대한 오만함에 대한 동료의 비판을 들으며 난 소름끼치도록 회장이라는 내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래 내 조직을 위해 회장이 서야 할 자리라면 해볼게."

강선배와 두번째 만남을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선배님! 저희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신 게 맞습니까?"

묵묵히 그렇지만 힘차게 고개를 끄덕거리 주시는 선배를 보며 눈물이 났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보육교사회는 이렇게 해서 연대모임에 결합하게 되었다. 후에 운영위원들에게 회장의 결심을 이야기하니 걱정반 안도의 한숨만, 다른 모습으로 경청하면서 "회장의 결심이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해볼게요"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에 후회감 남지 않도록 다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그 이후로 4번의 연대모임이 있었다. 4번의 공개적인 회의에서도 배운 건 너무 많았다. 회의를 준비하는 주최들의 진지한 자세와 그 자리 참여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자세와 끊임없이 사람·조직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세세한 배려!

그곳에선 질타나 비난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추궁하여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이전의 연대의 모습은 이제 나의 머리를 완전히 떠나버렸다. 아! 이런 것이 바로 연대라는 것이구나. 난 많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그곳에서 배워온 것들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노력한다. 모를 땀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니 조금씩 해나가면서 용기도 얻었고 무엇을 어떻게

게 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이다.

9월 추석전까지 인천시민에게 불소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홍보전이 있었다. 인천보육교사회도 시설부, 소모임장모임, 각집에서 회의를 거쳐 함께 이 사업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벌인 결과, 홍보전에 많은 수의 교사가 불소전단지들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적극적인 행동들을 함께 하게 되었다. 지금은 상수도 불소화에 대한 회원교육을 진행중인데, 8월에 운영위원들이 먼저 불소관련 비디오 시청과 설명회를 들었다. 9월 회원의 날에는 전회원이 함께 같은 방식으로 설명회에 참여했다. 각집 자모회의에서 12월전까지 불소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불소모임 활동기금 마련을 위해 각집당 기금조성 방안도 결정되었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면 충치가 60%예방될 수 있다 한다. 10세전에 이 불소물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불소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시립을 방지하고 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1ppm의 불소를 넣어 가정으로 보내면 각 가정에서는 지금처럼 그대로 수돗물을 이용함으로써 충치가 저절로 절반 이상 예방되는 방법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도 과천, 천안 등에서 실시하여 총 125만 6천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97년 올해만도 남양주·진주·순천·대전·영월·옥천 등에서 불소를 넣기로 결정하여 103만 4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인천에서도 불소를 넣게 되면 인천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의 물을 이용하는 인천·부천·시흥·광명

300만명이 불소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먹는 것의 장점은
- ① 간편하다.
 - ② 비용이 적게 된다(시민 한 사람당 1년에 100-200원예산).
 - ③ 충치예방효과가 60%정도로 아주 높다는 것(우리나라 시범실시지역에서도 검증).
 - ④ 안전하다(수돗물을 끓여먹어도 효과는 같다)는 것이다.

연대모임에 대해!

이제 나는 감히 하나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변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힘은 서로를 보듬고 함께 하려는 서로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천지역에서 수도물에 불소를 넣어 시민들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인천보육교사회가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들에게 이 소식을 나누고 싶어 띄웁니다.



소모임소개

인천 '그림책 분과' 소모임 탐방

고정미 · 인천보육교사회 사무국장

한국보육교사회에는 여러 소모임과 교육모임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모임과 교육모임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공유와 비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이번호부터 모임 소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탐방일 97년 9월8일 월요일 새싹들의 방 늦은 8시.

기자들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그림책소모임을 취재하러 간다는 사실이 그렇게 설레일 수가 없었다. 녹음기를 챙기고 사진기를 챙기고 하면서 잔뜩 힘을 내었고, 1시간 전쯤 동암역 남광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새싹들의 방'에 도착을 했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던 김동준선생님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자 그림책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모임을 준비하시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나 어떻게 하지, 평가서 어린이집에 두고 왔어~" "선생님 뱃속의 아기 잘 커요?~"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지?"

하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을텐데, 하나둘씩 모여드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힘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과 앞으로 진행될 모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차 있었다(그런 모습에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8시가 조금(?) 지나서, 6분의 선생님이 모두 모여 자세를 정비한 다음, 모임의 대표인 이상미 선생님께서 지난번 모임을 보고했다. 작가 현윤애씨가 이제 마와 마무리한 '바깥놀이'에 대한 그림책을 탐방하러 갔었다. 함께 갔던 선생님들이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하였고 출판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모두들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새로 들어온 샘터 어린이집의 이진실선생님께서 소개를 한 후 모두들 돌아가며 인사를 했다. 나이는 먹을 대로 먹어도 굉장하들 속스러운가 보다.

그림책 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해보자는 이인희선생님(샘터어린이집)의 제안에 모두들 그동안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이야기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평가서를 만들어보고자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이견 이렇고 저견 저렇고... 드디어는 새롭게 편집한 그림책 평가서를 탄생시켰다(별첨. 능력 있지요?).

총무인 노승경선생님(예술어린이집)의 발빠른 동작으로 간단한 간식시간을 갖은 후, 두권의 책 『콩콩이는 오늘따라 공차기도 재미없습니다』와 『심심해서 그랬어』에 대한 자기평가와 모임평가가 이루어졌다.



박미향선생님(예술어린이집)이 두 그림책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본다. 『콩콩이...』는 제목이 길기는 하지만, 아이들과 '콩콩이'라는 책으로 통하는 맛도 있고 콩콩이라는 이름 자체도 참

신선하다. 전반적인 그림 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계절에도 잘 맞는 책이었다. 유난히 아이들의 손이 많이 갔던 것은 나오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길을 잃어버린 두려움, 엄마를 만났을 때의 안도감이 아이들과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심심해서 그랬어』는 다른 책에 비해 아이들의 손이 많이 가지 않았던 그림책으로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정서에 더 맞는 것 같은 그림책이다. 하지만, 도시생활에 젖어있어 우리 문화의 정서를 쉽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섬세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농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생산의 과정들을 잘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책이다..."

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누군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참 뛰기는 신랄한 평가를 마치면서, 그림책에 관한 공부를 해보자는 김동준선생님의 제안에 모두들 대한성을 하면서 다음 모임(9/22월)에는 『어린이와 그림책(샘터출판사)』라는 책을 공부해 오기로 약속하면서.. 뭐가 그리 아쉬운지 엉덩이를 떼지 못하고 조잘조잘... 자연스럽게 수다로 이어졌다. 10월19일(일)에 있는 인천보육교사회 체육대회 준비위원으로 노승경선생님을 추천하면서..(참다못한 하마기자는 사진 한방 근사하게 찍고는 미리 안녕을 고하고 일어서야 했다.)

늦은 시간까지 파근파근한 열정을 갖고 모임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무릎에 앉아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림책을 보며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우리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연상되는 것 왜일까?

꿈을 먹고 자라는 우리네 아이들!

『그림책 분과』 소모임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꾸려지고 있으며, 현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상미선생님께서도 나눔어린이집(도화동)의 집대표로 근무하고 계신다. 모임은 2주에 한번씩 하루일과가 끝나는 8시경이고 장소는 회원 어린이집에서 진행하고 있다.

원하는 선생님이면 모두 오우케이.

따르릉은 팔육삼에 칠사사삼(863-7443)! 팔육삼에 칠사사 사~암!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그/림/책/소/모/임◆

그림책 평가

쓴 사람 : _____

쓴 날짜 : 199 년 월 일

책이름		출판사	
그린이		글쓴이	
쪽수 및 판형		가격	
어느나라 책		대상연령	
발행일		평가(개인)	
줄거리			
책을 보여준 방법 (언제, 어떻게, 집단, 개인, 사전활동 등)			
아이들의 반응			
교사의 평가			
모임에서의 평가 (좋은 점, 비판할 점)			
비고			

교사의 의견

프로 보육교사는 아름답다!

-근무시간 중 교육준비 시간을 확보하자-

서은희 · 서울 영등포구 어깨동무어린이집 교사

남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도 나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진작에 알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름,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사회인으로서 담당하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전 공인 아동학을 살려 보육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로부터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많은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 보육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마음과 열정이 앞섰던 처음 2-3년, 일에 대한 회의가 찾아와 나는 힘들게 했던 3-4년, 이 모든 시기가 지나자 이제는 좀더 성숙한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바른 교육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몇 년 전 내 귀에 아주 속 들어왔던 TV광고의 한 문구가 있다.

"프로는 아름답다."

코흘리개 우리 아이들도 다 알 만큼 흔한 이 광고 문구가 나를 끄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이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프로 보육교사는 아름답다.'

그럼 프로 보육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내 생각으로는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 또 영·유아기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 자기 교육철학을 갖고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는 교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교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물론 과정으로 이렇게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나는 이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종종 있었다.

'내 능력의 한계인가?'

'쌓여진 경력만큼 나는 내용성이 있는 교사인가?'

'내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이런 고민의 끝은 '나'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열악한 보육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2년에 한번 차례가 돌아오는 특기교육·보수교육을 어렵사리 받아도 이것을 현장에 적용시켜 아이들과 교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또 고민고민하여 뭔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획했어도 이것을 실행해보지 못하고 문서로만 남겨두게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20명의 아이들 생활을 관찰하고 고민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변화

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대안의 안을 교사가 갖기란 어렵다.

'왜?'

대답은 간단하다. 보육교사는 교사임에도 근무시간 중 교육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단 5분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보육교사도 인간이다. 어린아이들을 하루종일 돌보는 까닭에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어느 직업 못지 않다. 또 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정신적인 부담감 또한 크다. 인간인 보육교사가 9시간 동안 아이들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으로 보면 '프로'에 가까워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우리 동료 보육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나는 포함해서).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최대요소 중의 하나가 교사의 질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교사들이 질 높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중 앞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할 수 있는 제도로는 교육준비 시간을 교사의 근무시간 중에 확보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교육준비를 근무시간 중에 하게 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과제가 있지만 생각들을 모아보면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리라고 본다. '근무 시간 중 교육준비 시간의 확보'라는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면 '프로보육교사는 아름답다'에 좀더 내 모습을 근접시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건강교사소모임을 함께 해나갈 보육교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지난 4월19일 인치점이 주최한 "어린이집 아무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사교육 및 토론회" 이후 본지와 인치점은 그 자리에서 제안한 어린이집 건강교사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모임마다 주제(예: 감기, 설사, 발진 등)를 정하는 것, 예방접종,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 최요기관에서 실습)에 따른 학습과 건강습관 교육 등 하고 있습니다. 현재 6회 모임은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오후 8시-10시에 하며, 차비는 3개월에 4만원입니다.

본지는 한국보육교사지 협회·한국보육교사지 협회에게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구이-이집오-빌오공오.

세상읽기

‘대권=시민권’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위양자 · 본회 부회장

기아사태는 박찬호·선동열 열풍과 함께 늦더위를 더욱 길게 느껴지게 했고, '1.7.9.4.5'라는 숫자는 이 가을의 문턱에 '97년 대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소름도로 숨어들었다.

지금부터 10년전 이맘때, 온 국민이 6월항쟁으로 정취한 직선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가슴벅찬 발걸음으로 유세장을 찾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기억이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그러고는 노태우씨가, 김영삼씨가 대선의 승리자가 되었다. 결코 온국민적 승리는 아니었다. 대권은 대권일 뿐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대선" "대권"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고개를 돌리고 싶은, 때문지 않은 깨끗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쇼.

누군가는 너무 냉소적이라는 비판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번이 가장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난, 입 꼭 다물고 있다 그날 꼭 한 표 찍는 것만으로 끝내고 싶다.

왜냐구요?

아마 우리 모두의 숙제겠지요?.

10년전에는 군산 해방동 어관장에 가면 참조기 중간 것을 2천원에 15-20마리 살 수 있었다. 시내버스 한번 안타고 걸어서 시장 갔다오면 통나물 한 접시는 상에 올릴 수 있었다. 적어도 한참 일할 40대에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의 행려가 될 위험은 없었다.

10년이 지난 오늘 억척하다 못해 이제는 조조하는 돈놀음에 눈이 감기고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000당 000후보가 어찌고 하는 언론에 귀가 먹은 정도다. 눈 멀고 귀 막히니 할 말이 없을 밖에.

그래도 10년전과 분명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 적어도 내게는.

멋모르고 시작한 '탁아'가 어느새 '보육'으로 바뀌고 아이들은 '탁아소'가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오늘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순간까지도 먹고 입고 자는 일까지도 그놈의 '정치'와 연관이 있고 어찌하면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무히가시장의 야채값도, 과자 한봉지에 아이들 모르

게 붙는 세금도, 고지서가 날라와 눈으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도, 버스비·공중전화요금·우표값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놈의 '정치'고 그놈의 핵심이 바로 '대권'이라는 것을, 단지 앞에서 이제는 깨달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혹시 죽을까 두려워 군대도 안보낸 아들을 소록도에까지 보내가며 자식의 인생을 망쳐가며까지 움켜쥐고 싶을까? 물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권만 잡으면 그런 상처 정도는 언론을 통해 성형 수술하면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더 잘나갈 테니까라는 계산 속에서,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계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부모가 자식을 당연한 도리로 키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대선'이라는 것. "빨간 마후라"를 찍고 팔아먹은 청소년들에게 과연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을 입조차도 없는 사람이 "대권"을 향해 뛰어들었다는 현실감각은 갖게 되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남의 아이지만 눈뜨고 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로서 이 부끄러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국민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대통령인 줄 아는 착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치"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는 일이고, 그걸 잘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한사람 한사람의 권한을 빌려주는 것이 선거고,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한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뜻을 잘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빌려간 권한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닌 어른들의 생활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시작에 불과한 '97년 대선. 지켜봅시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 눈 감는다고 안베 어가라미는. 그래도 남 등쳐먹지 않고 땀흘려 일해 키워주신 부모님이 주신 눈, 입, 귀니 잘 듣고 보고 기억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오사카 이푸노에는 갖가지 사연을 담고 전전, 전후 일본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이 참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동포 인권운동도 가장 활발한데, 우리 귀에도 낯익은 '성화사회관(김덕환 선생님이 지난해까지 관장으로 계셨던)'에서의 '어머니학교'를 소개하려 한다. 특히 올해는 '어머니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일본에 와서 살려니 무엇보다 어렵고 중요한 것이 언어의 문제다. 세살배기마냥 말하기, 듣기를 익히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처럼 읽기, 쓰기를 배워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는 나는 어떻게 배움터를 찾아야 할까 고민이었는데, 성화사회관에서 하는 어머니학교에 다녀보라는 권유가 있었다. 어떤 곳이냐 물었더니, 이곳에 사는 재일동포 어머니,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했다. 처음 듣는 말이라 궁금증도 생기고, 한번 참여해보고 싶기도 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열리는 어머니학교에 발길을 건네게 되었다.

처음 가보니 학생들은 소설 '상록수'의 초기 아학 모습처럼 대부분이 내 어머니 또래는 넘쳐보이시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었다. 선생님들의 연령도 다양해서 젊은 학생들로부터 나이 꽤나 지긋해 보이는 어른들까지 일정하지 않았다. 학급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나뉘었는데 나는 물론 가장 초급반이다. 이곳은 이국 땅에 살면서 교육의 기회를

갖출 수 없었고, 그러기에 더욱 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재일동포들에게 기본적인 문자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20년전 양심 있는 일본인들의 뜻이 모여져 개교하게 되었다. 물론 거기에 이 지역의 두드러진 재일동포 인권운동이 밀반영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처럼 틀이 갖춰진 것은 언제부터인지 명확치 않지만 성화사회관 건물에서 다수의 자원활동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입학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졸업기간도 규정돼

있지 않다. 배움의 열의가 있는한 언제까지든 이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이 오륙십이 넘도록 제 나라 말도 온전치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의사소통 또한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이 얼마일까. 이제 반년을 산 내가 느끼는 언어장벽이 이만큼인데 어렵짐

작만 해봐도 헤아려지는 듯 싶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모인 어머니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목청껏 소리를 내고, 귀를 기울여 배움을 익히는 천진한 학생들의 옛된 모습들이다.

어머니 학생들은 대부분 말하기, 듣기는 이미 숙련돼있고 읽기, 쓰기와 한자 공부가 주된 수업 내용인데, 나 같은 경우는 말하기, 듣기부터가 시작이니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담 선생님은 고민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말이 가능한 선생님 반으로 배치되었는데, 선생님은 재일동포로 학생시절 독학으로 한국어를 익혔다고 한다. 식민지 땅에서 온 백성의 자손이기에 자기 문화와 국어를 천대 받으며 자신을 감추며 살았었는데, 대

학에 들어가서부터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는 결코 부끄럽고 감춰야 할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공부했고, 같은 뜻을 가진 동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결혼을 해 아이 셋을 두었고, 큰 아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신이 민족적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 아이들은 모두 민족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리 성실한 학생이 아니지만,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을 보면서 나 또한 어머니 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은 분명히 갖고 있다.

지난 7월말 베풀어진 어머니학교 20주년 기념잔치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재일동포 할머니의 인생사를 일인극으로 엮은 '신세타령'이라는 연극도 올려지고,

학생들의 문집 발간, 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 등이 열렸다. 2부에는 풍물패가 흥을 돋구는 가운데 정성껏 차려진 음식도 먹으면서 지난 20년, 어려움을 헤치며 이 자리를 지켜온 많은 이들이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교사 중에는 20년 근속한 분도 계시고, 학생 중에도 십여년을 다니신 분이 있었다. 말로 다 표현하고 글로 다 쓸 수 없는 배움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이리라.

20년 뒤의 어머니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나이가 들어도 결코 퇴색하지 않는 빛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욱 그 빛이 밝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그것은 더 많은 이들의 더 많은 땀과 노력이 받쳐져야 하겠지만).

○ 오사카에서 온 편지

재일동포 할머니들의 '어머니학교' 20주년

변미양 · 본회 명예회원, 일본 오사카 거주

'퍼즐 퍼즐' 정답

보	건	북	지	부	독			상
육		덕			무	병	장	수
정		방	방	국	국	역		리
보				예		의		제
센				단	풍	나	무	도
타	임	캡	술		레		모	
	오				다	이	애	나
	군	국	주	의		터		리
	란		권				동	자
					흑	색	선	전

말이든 맞추셨어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지요?

다음번에는 보다 멋진 퍼즐문제를

내드리지요. 참, 이번호의 지났호를 꼼꼼히

읽어두세요. 아마도 퍼즐문제를 풀기가 조금

쉬운 겁니다. 그럼 다음호에서 만나요...

육아일기

유빈이 말하다

이선홍 · 유빈이아빠

아이들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상사와 오가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며 많이 배웁니다. 어느날 발음은 불확실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뭐야하며 트이기 시작한 말이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던 이야기 속에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한 말을 통하여 주위에 항상 널려있던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할 때면 '어느새 우리 유빈이가 이렇게 컸지?'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곤 합니다.

정말 많이 컸습니다. 아기였을 때는 기고 앉고 서고 걷고 하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더니, 말문이 트이고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서는 또다른 즐거움, 더 큰 즐거움을 줍니다.

지겨울 정도로 동화책을 반복해 읽어달라고 보채던 그 많은 날들이 다 말을 배우기 위한 자기 훈련이었나 봅니다. 똑같은 짧은 글을 반복해 읽어주는 일은 지겨운 일이라 책을 들고 다가오는 유빈이를 발견하면 쓸쩍 엄마쪽으로 등을 밀곤 했는데 어느날 터지는 정확한 발음의 '아빠'라는 말에 깜짝 죽고 말았습니다.

근래에는 일 속에 묻혀 있다가도 머리 속에 유빈이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고 정확한 발음으로 '아빠'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하던 일손을 놓고 잠시 혼자 웃곤 합니다.

이제 17개월이 된 우리 유빈이가 언제 익혔는지 박자와 음정을 맞춰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날 저녁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애엄마가 포르르 달려 나와 우리 딸이 노래를 부른다고 손을 끌어 당겼습니다. 웃도 갈아 입기 전에 딸앞에 앉았고 유빈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귀엽던지.

엄마가 '나비야' '산토끼' '곰 세 마리' '달팽이집' '섬집아이' '웅달샘' '달' 노래를 불러주면 고개를 까덕거리거나, 몸을 흔들더니 어느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재미가 있는지 자주 부르자고 합니다. 혼자 놀다가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노래라도 '-도' '-는' '-다' '-요' 등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러기를 며칠 하면 몇 소절씩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울거나 안좋은 표정이면 배고프니, 물 줄까, 어디 아파, 인형 줄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면 그중 자기가 필요한 거면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빠 손을 잡고 필요한 것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 손가락으로 표시할 때도 너무 신기해 아이의 그런 행동을 기다리곤 했는데...

이젠 자주 하는 행동이나 필요한 일은 말로 표현하고 요구합니다.

물 쥐, 밖에, 인형, 우유 쥐, 치즈 쥐 등등의 심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반말을 하다가도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주세요' 하면서 뻔히 쳐다보는 진지함도 보입니다. 의사 전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잘 못알아들으면 화도 내고 삐지기도 합니다. 앞에 와서는 손짓, 몸짓과 함께 혼자 뭐라고 떠들 때 못알아들고 있으면 화가 나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뒤에 숨어버리면 웬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같이 지내지 못한 탓에 듣기(?)훈련이 안되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못알아들음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살필 만큼 영리해져 엄마가 화가 난 것 같으면, 웃으면서 '엄마!'를 부르며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안아줍니다. 그런 유빈이를 보면 웃으면서 안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안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 울어버리거나 쩡쩡대며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때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로 해'라고 요구를 들어주는데 '예'라는 대답과 함께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 귀엽지요?

거친 짓도 많이 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오고 다른 아이를 할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차 무서운 줄 모르고 길로 뛰어내리고 밥 먹다가 입부러 탄 짓을 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큰 책을 들고 와 읽어달라고 앉을 때 모른척 하면 손을 번쩍 들어 아빠 얼굴을 때리고 할키기도 합니다. 표현이 정확해질수록 관찰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는 듯 보입니다.

말 알아들으니 심부름도 곧잘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 하면 뒤쫓거리며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발로 패달을 밟으며 뚜껑을 열려고 바둥거리면 얼른 뛰어가 열어줍니다. 쓰레기를 쭈셔넣으며 뚜껑을 닫습니다. 방청소할 때면 자동차를 자기 자리로 가져가 정리정돈도 합니다. 담배 심부름할 날이 멀지 않았나 합니다. 나의 소원 담배 심부름... 곧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말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갓난 아이의 물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도 얼마 없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문밖을 나서는 유빈이를, 뒷집 지고 동네길을 뒤쫓거리며 걷는 유빈이를 따라 나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탁아소별곡

롯데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이야기 하나 - 내 양말 땀구났네 ♪♪

화장실을 다녀온 홍석이는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홍 석 :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 왜요?

홍 석 : (발을 내밀어 보인다)

선생님 : (구멍난 양말을 보며) 양말이 땀구났어요?

홍 석 : (심각한 표정으로) 아뇨--

선생님 : 그럼?

홍 석 : 양말이 부서졌어요.

☺ 이야기 둘 - 쇼킹하잖아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안경을 벗고 씻고 있었다.

인 하 : 선생님 안경 벗으니까 이상하다.

선생님 : 그래?

송 룡 : 선생님 매일 안경 벗고 다니면 좋겠다.

선생님 : (어제 안경 벗으니까 더 예쁜 모양이지...) 왜?

송 룡 : 사람들 깜짝 놀라게요.

선생님 : ㅁ

☺ 이야기 셋 - 특별메뉴

어린이집에 처음 다니게 된 고현이는 유달리 식단과 간식에 관심을 갖는 아이다. 어느날 고현이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께 하는 말.

고 현 : 선생님 오늘 밥은 뭐예요?

선생님 : 음, 짜장밥!

고 현 : 아아 선생님, 저는 짜장을 싫어하거든요. 점심이에요, 저는 특별히 짬뽕 시켜주세요

선생님 : 짬뽕--

☺ 이야기 넷 - 예기베? 밥베!

토끼반 화진이의 엄마가 셋째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 있었다.

화 진 : 선생님 우리 엄마 뱃속에 예기 들어 있어서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친구들 : (손으로 배를 불룩하게 만들어 보이며) 배가 나왔대--

그때 때글때글한 눈으로 바라보던 수빈.

수 빈 : 선생님 밥 많이 먹으면 배 나오고 그러면 예기 넣지요?

<여기도 봐주세요>

이번 「탁아소별곡」은 전주시 롯데어린이집의 이주영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탁아'라는 말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육'이란 단어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탁아소별곡」만 안바뀌고 그대로예요. 어디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사람 환히 웃게 만들, 멋지고 환상적인 이름 없을까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 포트 ◆

만원버스 안의 희망

박화명 · 광주시 동구 도담도담어린이집 교사

간밤의 열 때문이었는지 아침부터 울고 보채는 누리를 달래 옷을 입히는 한선생의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며칠 전부터 목이 거렁거렁 하며 감기티를 내더니 어젯밤엔 기어이 39도를 오르내리며 아파하던 누리였다. 워낙에 잔병이 없는 예라 그런지 다행히 해열제와 찬 보리차만으로 열도 내리고 새벽녘부터 곤한 잠에 빠졌었다. 옷을 챙겨 입히는 엄마의 조심스런 손길에도 아이는 예민하게 눈을 떠버렸고, 짜증내는 누리를 보는 한선생의 마음은 어젯밤보다 더 쓰러졌다. 누리를 챙겨 안고는 서둘러 버스정류장으로 나섰다.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 버스를 타기가 무척이나 힘들지만, 출장간 남편의 빈 자리를 대신해 수월하게 출근할 방법은 달리 없다.

버스에 오르니 좀 이른 시간이라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자리에 앉자, 누리는 다시 잠이 오는지 눈이 가물거렸고 한선생은 누리의 등을 토닥거리며 생각에 잠긴다. 버스는 점점 사람들로 차 오르고 시내로 들어갈수록 길도 막히고 경적소리들도 높아졌다. 만원버스 안에서 짜증스럽고 힘든 표정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사람들을 보며 한선생은 문득 8년전 대학시절을 떠올렸다.

5월이 되면 대학 교정 곳곳엔 518관련 선전물과 구호로 넘쳐났고 연일 이어지던 도청앞, 금남로의 집회장에 가기 위해 매일 저녁엔 선배들과 함께 학교 후문 앞에서 6번 시내버스를 뺏박이 뒀었다. 80년 이후 매년 했던 5월항쟁 기념행사들이었지만 대학시절 함께 했던 그 시기의 5월들은 한선생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많은 의미들을 깨닫게 해준 시절이었다. 버스안 가득 타고서 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해 5월은...' 하며 선전활동도 하고 버스 유리창에 '5월에서 통일로!' '진상규명!' '도청오!' 등의 구호를 쓴 종이플래카드를 붙이고 버스노선따라 온거리를 누렸다. 지금이야 만원버스는 보내버리고 다음 버스를 다시 기다리지만 그때 탄 사람이 적은 한가한 시내버스보다는 가능하면 총나들시루처럼 사람 많은 버스를 타서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유익한 한 자리라도 더 나눠드리며 애쓰던 청춘의 한때였다.

'복잡스런 만원버스 안에서도 짜증보다는 흥에 겹고 마음이 팍 차오르던 그런 힘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선생은 곰곰이 그때를 되짚으며 창밖을 응시한다.

대학에 들어와 사회와 사람살이에 대한 많은 공부와 경험, 그리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4년을 열심히 뛰었고, 또 그런 생활 한 지점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다. 학교 앞 허름한 식당의 리면 한 그릇에도 함께 읽고 공부하던 작은 책 한 권에도, 5.18광장의 뜨거운 햇살에도, 그리고 만원버스의 소란스러운 안에서 더 항상 즐거움과 보람이 있었다. 그때에 비해 지금의 생활이 그리 한가한 것도 심란한 것도 아니지만 요새 한선생은 여러가지로 힘들고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다. 많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뛰어난 보육교사 생활동안 늘상 새벽부터 밤까지 앉아 볼 시간없이 바빠 돌아왔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뛰고 얘기하고 놀다보면 저녁8시는 되어야 한숨 돌려지는 생활이 몇년째. 틈틈이 짜여지는 회의며 교사연구소모임까지, 잘해보려고 하는 활동들이 누리가 크고 여러가지 일들이 늘어나면서부터는 가끔씩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뜻과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한선생은 자신의 고민이 흐릿하기만 하는 것 같다. 한선생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버스는 어느새 내릴 곳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침장에 빠진 누리를 추스려 버스에서 내려 걸으며 만원버스 안에서 소중히 살을 깨우치고 배워나갔던 그 시절의 희망을 생각했다. 아이들 소리가 희망하게 들려오는 어린이집이 가까워올수록 한선생은 새로운 고민을 만들어갔다. 출근길의 만원버스가 되돌아켜 준 자신의 희망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들의 목소리

떠남과 시작의
아름다움

백미경 · 서울 구로구 다우리어린이집 전직교사

'삼'이라는 숫자가 주는 암시처럼 나는 삼년을 주기로 새로운 변화를 해왔던 것 같다. 학교 졸업후 직장생활을 3년 반정도 했고, 현장에 들어와서 3년을 지냈다. 그리고 지역사업의 한 고리로 어린이집을 시작한지 만 3년이 지나자 나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내 나이 서른이다.

반도 끝자락 바닷가 한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을 떠나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기업체를 다닐 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큰 희망과 꿈은 표현되어지지 못할 만큼 큰 것이었다. 그러나 점점 나는 나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큰 빌딩 속에 압도당하듯 점점 짓눌리고 있는 나. 너무나 큰 환경의 변화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 존스러움과 서투른 몸짓은 나를 사람들 속에서 점점 소외시켰고 다른 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과감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노동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나의 이상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나는 즐거웠다. 어린 시절의 한때처럼 마음껏 웃고 울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내

삶과 사랑의 열정을 마음껏 토해내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삶은 또 다시 나를 밀어내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나를 한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소중한 울타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니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난 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어렵듯이 떠오르는 깨달음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두렵다고! 무엇인가 내 인생의 그릇이 채워지고 있기 보다 자꾸 비어지고 있다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시작을 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두렵고 어려운 존재였다. 만지면 내 커다란 손에 의해 으스러질 것 같고,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부셔서 오랫동안 쳐다 볼 수도 없을 만큼 경이로운 존재였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치마를 입고 아이들 앞에서 예쁘게 율동을 하는 나를 상상해 보았지만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아이들의 똥오줌을 가려주고 먹일 것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애쓰면서 점차 생활인의 모습, 보육교사로서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끝없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일임을 깨달으며 가정에서의 여성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정 환상과 동경으로 존재하던 결혼생활의 영상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나를 압도한 것은 질곡의 삶이었다. 생활인이 된다는 것은 질곡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리라. 왜 그렇게 압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던지 그때는 참 괴로웠다.

그런데 삶은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그 속에 또다른 행복과 기쁨을 품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희노애락의 복합적인 감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들과의 생활이 나의 삶이 되어갔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어린이집 부모들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또하나의 깨달음 앞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질과 깊이는 이미 달라있었다. 나는 진보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어린이집과의 인연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은 내 삶의 큰 축복이다. 이전의 삶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곳이였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같이 힘들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일깨워 주던 어린이집의 그 많은 일들은 나의 나태함을 끝없이 질책했고, 말할 기운조차 없어 쓰러질 듯한 힘겨움에도 아이들의 맑고 투명한 웃음소리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어려움의 가벼움이 있었다. 그것은 감동으로 다가왔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분명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주기만 할 뿐 얻는 것은 없다고 하겠지만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내가 주는 것만큼 답해주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내 나이 서른이다.

나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한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나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어쩌면 기쁨의 무게보다 어려움의 무게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신한다. 지금까지 삶의 경험이 내게 준 것 "삶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므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이런 변화들이 나

와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와 함께 하는 것이어서 더욱 크고 소중한 것이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활과 생각과 행동을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침묵 속에서만 진실이 보이고 세상이 바로 보인다. 내가 정지해야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저 자연 속에 내가 하나의 점처럼 있다. 침묵하는 법, 정지하는 법을 터득해야며" -『그리운 것들은 산 위에 있다』 김용택산문집-

●백미경선생님은 구로시민센터 '지역아동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다우리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고 9월부터 어린이전문서점을 개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보육교사회의 활동은 계속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백미경선생님의 새로운 활동에 격려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동면에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은 우리들을 바라보며, 만물이 고창한 농부들이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적으나 소중한 계절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의 다우리어린이집을 개업 축하해 주시길 위해 어려운 시간을 팔로에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 동이 저의들에게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빠뜨리지 않고 오셔서 많은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우리어린이집은 매머고 건조한 구로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 좋은 책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급, 읽도록 함으로써 시선이 흐릿수족 그 황금색 매머가는 우리 아이들의 보급자치가 되고자 합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한문고 어려워도 우리들 생애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작은 애정이 굳어져 가는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은 언뜻부터 소중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분들이시니 문 건강하시고요, 주석 잘 보내 시기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1997년 9월10일

다우리어린이집 대표 백미경 드림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6년 가을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유아교육개혁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유치원/보육시설로 대표되는 유아교육기관도 유아교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정립과 대안모색을 위하여 당면 현안문제로 제기되는 유치원/보육시설 일원화의 문제,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 보육의 질 문제 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목 :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1997년 10월 24일

오후 2시-5시

장소 : 종로성당 (02-765-6105)

대상 :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유아교육(보육) 관련자 및 단체, 관계부처

내용 : 1. 주제발표
2. 외국의 유아교육체제 사례발표
3. 지정토론

보육계 풍향

주최 :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연락처 : 한국보육교사회 (02-275-8505)

보육시설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사교육

본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의료정보수집, 교사교육, 건강검진, 지역주치의 확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를 위하여 교사건강교육을 실시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997년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7시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내용 :

5:00-5:40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새터, 예술어린이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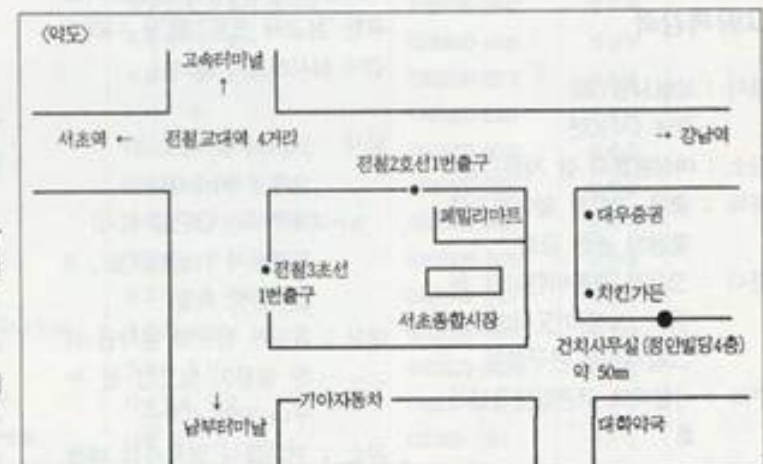
5:40-6:10 행동장애 어린이의 조기발견과 관리

6:10-6:30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결과 보고

6:30-7:10 자유토론(건강관리 방식에 관하여)

제공자료 : 성장과 발달 자료집, 성장도표, 행동발달도표의 기념품

문의 : 한국보육교사회 (02-275-8505)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02-362-0377)



'97 여성문화 한마당 "힘 모아 힘을 줘"
- 12/18 여성의 한자로 정치
를 개혁합니다.!

일시 : 1997년 10월18일(토)
오후2시▶4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용 :
•여는 마당
빛자루 퍼포먼스
개회선언 및 대표인사(지은희
상임대표)
•본마당
춤마당-여자 20살 출근하는
여자들
노래한마당-여성밴드 "마고"
흔극한마당-출연 여성예술집
단 <오름>
•맺음마당
다함께 뜻을 모아 노래하며
어울리기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02-273-9535)
후원 : 공보처

그림책강좌

일시 : 10월14일(화)
저녁 7시30분
장소 :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
제목 : 좋은 그림책 알아보기와
활용에 관한 강좌
강사 : 오윤정(동봉어린이집 원
장, 어린이도서관연구회
그림책분과 연구회원)
주최 : 서울지역 국공립보육교사
회
회비 : 2,000원

연락처 : 한국보육교사회
(02-275-8505)

인형극강좌

시기 : 10월초
장소 : 씹씹어린이집(2호선 서
울대입구 전철역 근처)
강사 : 박남희(한겨레 문화센터
인형극 강사)
회비와 시기는 10월1일 사전모임
에서 결정
주최 : 봉천보육교사회 준비위
(담당자 이경녀 02-877-3617)

**제10기 성교육 강사 훈련
(초급반)**

청소년성문제를 예방하는 차
원에서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라도 바로 그자리
에서 대책과 교육이 생활교육,
가치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이지만 한 성
문화속에서 청소년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일선교사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시 : 10.16(목)-11.7(금)
오후 7:00-9:00까지
(매주 목, 금요일 실시)
모의실시 11월8일(토), 9
일(일)중 택일
대상 :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
한 열정이 있으신 분 누
구나 30명 선착순
장소 : 현대해상 명동지점 예정

- 2호선 을지로 입구역,
4호선 명동역
수강료 : 10만원(실습비, 교재비
포함)
입금계좌 :
국민은행 김성아(성교육센터)
012-01-0603-811
문의처 : 내일신문 성교육센터
02-326-3500/338-7480

**제2회 국제(영)유아교육
전 학습교재/교구전**

전시품목
1. 교재, 교구 및 도서류
2. 학습놀이용품, 완구 및 기구
3. 영상 시청각교재
4. 종합용품
5. 시설, 설비 및 인테리어
6. 의류, 의약, 위생/안전용품
7. 기타(관련기관 및 단체)
개최기간 : 10월16일(목)-10월
19(일)
개최장소 : 중소기업 여의도종합
전시장(제1전시실)
문의 : 한국국제전시회
(02-760-2512)

**건강교사소모임에 함께
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본회와 인의협은 공동으로
어린이집 건강교사교육을 시범적
으로 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모임마다 주제에 따른 학습과
건강일기 공유합니다. 현재 6회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

는 분은 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모임일시 : 금요일 오후8시-10시
(적주 진행)
회비 : 3개월 4만원
문의 : 한국보육교사회
담당 최순옥사무국장
(02-275-8505)

**인형의 세계를 만나보세
요**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지요. 여기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넓혀주는
인형극 공연팀들을 소개합니다.

이 인형극팀들은 지나 여름
한국어린이영화에서 주최한 제
3회 대학인형극제에 참가했던 팀
들로, 각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
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인형들이 펼치는 상상
의 세계를 만나 보세요.

학교 및 팀명	작품명	연락처	대표학생
서원대학교「국놀이」	술속 이야기	(043)161-8340	장갑희
대전실업전문대학「점점」	통통이의 첫 무대	(042)629-6156	윤승희
정주전문대학「피노키오」	꼬마 통통이의 여행	(0431)279-4165	정미옥
영남대학교「작은 인형회」	황도케비가 테러 간대요	(053)810-2890	이신희
공주전문대학「꼭두각시」	달님에게 빈 소원	(041)650-6020	오지연
천안외국어전문대학「한올다리」	술속의 대궐회의	(0417)550-0420	장미경
경북전문대학「파랑새」	늑대와 아기돼지 삼형제	(052)330-5079	윤신경
대전전문대학「햇님달님」	파란 여우의 모험	(042)580-6175	정미진
충천교육대학교「정개구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0361)261-4324	이현숙
대구산업전문대학「아이사랑」	친구찾기	(053)983-9462	최진영
수원여자전문대학「놀이마당」	내 친구 꼬니	(0331)290-8170	오은정
성신여자대학교「한사랑」	새롭고 신기하고 신나는 일	(02)920-7234	이은정
경인여자전문대학「피노키오」	아기곰양의 팔복질	(02)618-0998	김혜용
송의여자전문대학「인형나라」	오즈의 마법사	(02)3708-9490	정성희
경원대학교「새종이」	술속에서 일어난 일	(0342)750-5964	박선미
장안전문대학「꼭두각시」	피해는 팔고기	(0331)294-8560	양혜원
안양전문대학「하늘터」	줄방이가 변했대요	(0343)45-8627	정문기
원광대학교「셋별」	예뻐주사 무섭지 않아요	(0653)50-2642	임지혜
제명전문대학「이슬」	육십경이는 싫어	(053)620-2645	정상수
서강전문대학「할나무」	외톨이 아기코끼리	(062)520-5312	하은영
광주대학교「동심」	사라진 루	(062)670-2527	문경희
울진전문대학「하늘지기」	아기곰양의 팔복질	(0416)50-9000	강복순
고신대학교「씨앗」	재봉이와 술속 친구들	(051)400-2351	신혜은
동신전문대학「파랑새」	보물을 찾으면 부자가 되나요	(062)941-0442	임경미
광주보건전문대학「무지개」	아낌없이 주는 나무	(062)958-7673	김민경
경남대학교「꼭두각시」	호호마녀와 아옹이	(0551)49-2317	정윤정
경성전문대학「아동문학국연구회」	흑부리 열감님	(0357)33-8316	강영주
배재대학교「동화나라」	햇님과 달님	(042)520-5415	전지현
순천공업전문대학「한아이」	사이좋은 친구	(0661)744-7311	최유경
명지전문대학「인형과 사람들」	나랑 놀자 친구아	(02)300-1261	이윤창

소식과 소식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탈지분유로 북녘 땅에 가다

8월26일 인천 연안부두에서 북한어린이들에게 밀가루와 탈지분유를 보내는 선적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기독교여성위원회에서 그동안 모금한 성금으로 1억 5천만원어치의 탈지분유로 구입한 것을 북한 민주여성동맹에 지정기탁하게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선적식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기독교 20여개의 교단, 지역 YMCA, NCC 등 40여개의 단체가 모금에 참여하여 밀가루도 함께 보내졌습니다. 물품들은 동진 나고야호에 실려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선적식에 본회에서는 임남희부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무장관(제2)초청 여성단체장간담회

9월5일(금) 12시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정무제2장관실 주최로 여성단체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 소비자, 주부, 농민관련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의 대표 약 20여명이 참석하여 새로 취임한 이연숙장관

과의 상견례 및 각 단체활동에 대한 교류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회에서는 남미영회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건강교사모임

건강교사 5회째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교사들이 사전에 과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한 후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6분의 교사들이 의원, 보건소, 병원 등에서 1·2·3차 의료기관/보건소 이용방법, 소아과·내과 환자의 기본처치법, 각종 검사들에 대한 조사, 사용되는 약들 조사, 외상처치요령, 보건소에서의 어린이·모자관리 등의 과제를 가지고 실습·조사합니다.

↓ 건강교사모임 진행모습



영아교사소모임

영아교사소모임은 9월 26일로 모임을 마감하고 지난 1차 연구모임과 결합하여 10월, 11월 두달 간 연구모임을 합니다. 주제에 따라 연구일기를 쓰고 토론하던 방식에서 자료조사, 검토작업도 함께 하여 내실있게 진행하려 합니다.

인천보육교사회

- 새싹들의 방 박은정선생님께서 4개월간의 출산휴가를 끝내고, 9월23일부터 복직 근무하십니다. 아들 유재근은 밝은어린이 집에 맡기신다구요.
- 임수정선생님을 모시고 유아국악에 대하여 제1회 열린강좌는 11월22일(토) 늦은 4시·6시 진행합니다.

- 9월 회원의 날 모임이 20일(토) 부개동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늦은 7시-인사 및 어린이집 별로 돌아가며 노래 1곡씩 (요즘 아이들과 많이 부르는 노래)

7시30분-생일잔치(89월) 고정미, 박은아, 이진실, 이현주, 김정숙, 안경아, 박미향선생님

8시-교육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를 예방합니다.'
감사 : 이원준치과 원장님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 예방을 바라는 시민모임 운영위원장)

9시-뽕풀이

- 10월 19일 인천지부 체육대회가 전·현직 교사, 인천대 자활'햇내움' 친구들이 한데 어울려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릴 예정입니다. 각 소모임별로 1인씩의 주체가 모여 준비모임을 꾸렸습니다.

- 9월28일(일) 오후 2시 나눔에서 전직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 풍물소모임 '메나리'의 연습공간인 노동자 풍물공간 '더눔'의 100% 완전 수해를 극복하고자 인천지역 문화패 연합의 공동주최로 9/6(토)에 일일호프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연습공간이 없어서 일요일에 인천대를 전전공공하며 메뚜기가 되어야 했던 '메나리'회원들이 24일 드디어 제자리 찾기에 성공했습니다.

- 여행소모임 '들꽃나라'의 9월 여행은 목적이인 '무의도'가 변경

되어(배편없음) 영종도의 덕교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1명의 성원들이 갯벌에서 조개를 잡느라 등허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개에 눈이 멀어... 예고 그 잡은 조개를 끓고 나오지를 못해서 "도와주세요"를 외치고... 누구는 삼일 뒤 조피를 해야 했고, 누구는 일주일 후에야 겨우 몸이 풀렸다고 했고... 하지만 돌아오는 배편 뒤로 지는 노을은 그 모든 힘들의 과정들을 소리없이 녹여주었고.. 셋! 이경미(예술어린이집)선생님 이빨 조심하세요. 바이킹 타면서 옆에 앉은 사랑의 팔을 물어뜯었대요.

27일-28일 계룡산으로 1박2일의 산행을 떠납니다.

봉천보육교사회준비위

-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봉천동 예기방이 전방 찾기에 분주합니다. 지역의 재개발로 곧 철거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봉천동에기방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교사들의 논의가 한창입니다.
- 인형극강좌를 시작합니다.

10월초부터 시작되는 인형극강좌는 한겨레 문화센터 인형극감사 박남희선생님을 모시고 봉천교사들이 함께 합니다. 강좌를 마친 후 지역에서 인형극공연을 하려는 계획과 이후 소모임으로 계속 모임을 할 당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교사들에게 개방하여 원하는 자는 모두 오라고 하네요.

서울지역 국공립보육교사회

- 국공립보육교사회를 알리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교사회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10월14일 저녁 7시30분에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에서 '좋은 그림책'강좌를 오윤정선생님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남부보육교사회

- 남부보육교사회는 교환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우리어린이집의 김호연선생님과 토틀이어린이집의 이애용선생님이 상대방 시설에서 1주일간 생활을 하고 평가 이후 교환수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9월29일부터 6주간 구로청년회 사무실에서 풍물강사의 인도로 풍물강습회를 합니다.

수원보육교사회

- 수원의 율왕중어린이집이 고질적인 적자난으로 9월3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용기중어린이집과 통합을 한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한곳으로 모아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강영신선생님이 경기도 여성능력 개발센터의 예기방에 취직

을 하셨습니다. 차후 지역의 개방이라는 전망을 갖고 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기혼여성들의 아이들을 한시적으로 보는 곳이고, 수원여성회 회원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자원활동을 하신답니다.

● 적자운영의 해결을 위해 11월 9일 하루주점을 300만원 목표로 계획중입니다. 무난히 달성하시길...

부산보육교사회

● 부산보육교사회는 여름수련회에서의 결의를 모아 소모임을 진행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소중히 하는 소리소모임(국악), 동래구의 종물소모임이 진행중이고 관찰소모임은 10월중에 가동 예정이랍니다.

● 조직부에서는 아심찬 꿈을 안고 부산보육교사회 소식지를 월간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네요.

또한 3명의 신입교사가 들어와 교육과 환영회를 했습니다.

광주보육교사회준비위

● 도담도담어린이집과 가람놀이방은 9월12일-13일 양일에 걸쳐 보성 관광농원으로 가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캠프는 교사들이 자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자연관찰 등 평글고, 자연

을 느끼며 놀았습니다.

● 10월1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일일엄마아빠 행사에 광주보육교사회 아이들이 참가하여 하루를 짙은 엄마아빠들과 재미있게 지낼 예정입니다.

사람들

● 결혼하십니다.

부산보육교사회의 지정회(아기자라터) 선생님이 10월19일에, 박은영(해룡어린이집) 선생님이 10월26일에 결혼을 하십니다. 부산에 경사났네요. 다른 선생님들 주머니 걱정되겠어요. 하여튼 부산 노처녀 박모양, 한모양 등 분발하세요.

●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광주의 명예회원 박말신선생님이 아들을 순산하셨습니다. 올 초에 첫아이를 잃어 박말신선생님을 아끼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워했는데,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셨다니 너무도 기쁜 소식을 회원들께 전하게 되어 마음이 이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달고 잘 살길 진정 바랍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서울지역 :

김미정(재미난어린이집 교사), 민은홍(어깨동무어린이집 교

사) 외 2명

부산지역 : 전리라(온천어린이집 교사)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본회 9월 활동일지

9/ 1 집행위 회의

3 건강교사소모임

5 영아교사연구모임

8 집행위 회의

9 여성평화의 집 이사회

여연 조직위원회

12 정책개발위원회

18 집행위원회

19 건강교사모임

22 서울보육교사회 준비모임

25 여연 사무국장 회의

26 지도력강화훈련 1차 준비모임

영아교사연구모임

27 이사회

28 집행위원회

■ ■ ■ 편집부에서 ■ ■ ■

♣ 송편은 많이들 드셨어요?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했습니다.

이인제씨 탈당과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박찬호 14승 돌파, 월드컵 한일예선전 승리, 수입쇠고기 0-157과동 등 가을바람이 물고 온 갖가지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추석들은 잘 쇠셨는지요?

올 추석에는 개기월식이 일어나서 보름달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을 듯 한데요, 보름달을 보신 분들은 무슨 소원들 비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무슨 소원 빌었느냐구요? 그야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꿈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네 아이들』 독자가 많이 많이 늘기를 바라고 또 한국보육교사회가 보름달처럼 동실동실 살이 오르기 를 빌었지요.

자,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가을, 이 좋은 계절에 우리도 그간 뿌린 땀의 대가를 술술 거둬 유종의 미를 준비해야겠습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원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대변지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부의 헌신과 함께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종 아이디어와 원고가 풍부하다면 더 없이 좋은 소식지가 되리라 믿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이디어, 또 교육현장과 생활현장에서의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만이 『우리네 아이들』의 살 길 (!)입니다.

♣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김경신, 근로복지공단

님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의로 단체명의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 모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교사는, 우선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 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을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소식지, 중앙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될 수 있고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에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회원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메뉴입니다.